

KREI

농촌 청년여성 생활실태

이순미 · 마상진 · 최재현



KREI

농촌 청년여성 생활실태

이순미·마상진·최재현



연구 담당

이순미 | 부연구위원 | 제1~6장 집필

마상진 | 선임연구위원 | 연구총괄, 제1장 집필

최재현 | 전문연구원 | 자료 수집 및 분석

R962 연구자료-4

농촌 청년여성 생활실태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22. 12.

발 행 인 | 김홍상

발 행 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 지아이지인

I S B N | 979-11-6149-610-8 95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제1장 서론	1
제2장 경제활동과 소득	
1. 경제활동과 일자리	9
2. 소득과 경제적 독립성	22
제3장 가족 가치관과 가족 구성	
1. 혼인과 가구형태	28
2. 결혼관과 결혼 의향	30
3. 출산 및 양육 인식과 성역할 태도	34
4. 성과 재생산 건강권	38
제4장 주거복지삶의 만족도	
1. 주거와 교통	43
2. 주관적 건강상태	49
3. 삶에 대한 주관적 평가	51
제5장 사회·정치 인식과 지역사회 참여	
1. 사회·정치 인식과 의견 표명	57
2. 지역사회 참여와 교류	60
3. 정주 의향	63

제6장 성인지적 농촌 청년정책의 방향

1. 요약: 지역과 성별의 이중 소외	69
2. 성인지적 농촌 청년정책의 방향	72
참고문헌	75

제1장

〈표 1-1〉 지역별 20~39세 성별 인구 및 성비 변화 4

제2장

〈표 2-1〉 비경제활동인구 현황 11

〈표 2-2〉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수의 도농 간 비교 12

〈표 2-3〉 최종학교 이후 첫 취업까지의 기간 13

〈표 2-4〉 구직 경로 14

〈표 2-5〉 부업 여부 및 총 이직 횟수 14

〈표 2-6〉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15

〈표 2-7〉 종사상 지위 16

〈표 2-8〉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 17

〈표 2-9〉 월평균임금, 주당 평균근로시간, 시간당 임금 19

〈표 2-10〉 일자리 만족도 1: 근로조건 20

〈표 2-11〉 일자리 만족도 2: 전공 일치도, 적정 대우, 실직 불안, 이직 의향 21

〈표 2-12〉 직장 내 괴롭힘 경험(다중응답) 22

〈표 2-13〉 청년 가구주 가구의 가계 동향 23

〈표 2-14〉 소득 충분성과 채무 현황 23

〈표 2-15〉 가장 부담되는 생활비 부문 24

제3장

〈표 3-1〉 청년의 가구형태 변화 30

〈표 3-2〉 결혼에 대한 태도 31

〈표 3-3〉 비혼 청년들의 연애 실천과 결혼 의향	31
〈표 3-4〉 비혼 청년들의 비혼 이유	32
〈표 3-5〉 비혼 동거에 대한 태도	33
〈표 3-6〉 출산에 대한 태도	35
〈표 3-7〉 가사분담 태도	35
〈표 3-8〉 일·가정 양립 어려움과 자녀 양육에 바람직한 사회 조건 인식	36
〈표 3-9〉 유자녀 기혼 청년들의 양육 불편사항	37
〈표 3-10〉 기혼 청년여성의 임신, 인공임신중절 경험 및 평균 횟수	38
〈표 3-11〉 기혼 청년여성의 피임 방법(다중응답)	39
〈표 3-12〉 청년여성들의 여성질환 증상 및 병의원 치료 경험	40

제4장

〈표 4-1〉 주택 탐색 어려움	44
〈표 4-2〉 주거 독립 청년들의 주택 점유형태	45
〈표 4-3〉 주거 독립 청년들의 주거비와 주거비 부담, 주택 만족도	46
〈표 4-4〉 주택 및 거주환경 불만족 사항: 방법	47
〈표 4-5〉 성별, 연령별 야간보행 불안도 및 불안 이유	48
〈표 4-6〉 이용하는 교통수단	49
〈표 4-7〉 성별, 연령별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우울 증상 유병률	50
〈표 4-8〉 자살 충동 및 이유	51
〈표 4-9〉 자기 일의 가치 평가와 자율성 인식	51
〈표 4-10〉 삶의 만족도	52
〈표 4-11〉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	54

제5장

〈표 5-1〉 사회적 신뢰와 공정성 인식	58
〈표 5-2〉 정치 효능감	58
〈표 5-3〉 개인 의견 표명 활동 여부	59
〈표 5-4〉 지난 1년간 단체 참여 여부	60
〈표 5-5〉 지역 내 교류·관계 및 지역 관심도	62
〈표 5-6〉 지역사회 활동 참여 장애요인	63
〈표 5-7〉 농촌 청년의 지역 소속감과 계속 거주 의향	64
〈표 5-8〉 농촌 청년의 현재 거주지역을 떠나고 싶은 이유(다중응답)	65

제1장

〈그림 1-1〉 성별, 연령대별 농촌 순이동 변화(2010~2020년) 4

제2장

〈그림 2-1〉 성별, 연령별 취업률 10

제3장

〈그림 3-1〉 지난 10년간 청년층의 기혼자 비율 변화(2010~2020년) 29

제4장

〈그림 4-1〉 삶의 영역별 만족도의 상대적 차이 53

제1장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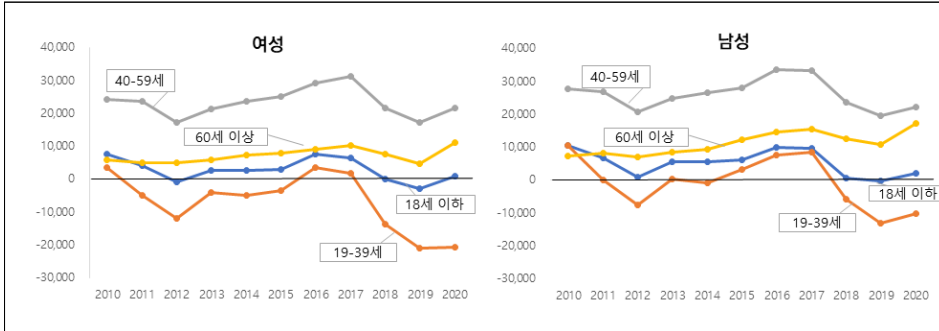
1 서론

농촌의 지속가능성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누차 강조되어 왔다. 그런데 청년에 대한 정책적 관심 대비 실질적인 정책 투자가 충분한가는 차치하더라도 그 정책이 ‘어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가는 충분히 고찰되어야 한다. ‘농촌 청년’이 단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농촌 청년 정책은 젠더 중립을 표방하며 ‘청년’이라는 범주 안에서 남성과 여성을 동일시해왔다(이순미 외, 2020). 그에 따른 인과적 결과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지난 10년간 농촌 인구는 증가하였으나 청년여성 인구는 감소하였다. 이는 농촌 청년여성 순유출이 남성보다 크고 지속적인 탓이 크다(그림 1-1). 그에 따라 농촌 청년층 내 성비 불균형도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2020년 기준, 면 지역 청년 인구는 남성이 여성의 1.4배 가까이 많을 정도로 성비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다(표 1-1).

〈그림 1-1〉 성별, 연령대별 농촌 순이동 변화(2010~2020년)

단위: 명



자료: 통계청(<https://mdis.kostat.go.kr>). 각 연도 인구이동통계. 검색일: 2022. 3. 20. 원자료를 저자 분석.

〈표 1-1〉 지역별 20~39세 성별 인구 및 성비 변화

단위: 만 명, 여성 100명당 남성 인구

구분	읍부			면부			동부		
	남성 수	여성 수	성비	남성 수	여성 수	성비	남성 수	여성 수	성비
2000년	64.9	59.9	108.4	82.3	63.3	130.0	680.0	672.3	101.1
2005년	62.4	57.2	109.0	60.8	45.7	133.0	666.8	661.4	100.8
2010년	60.1	54.4	110.3	49.9	37.3	133.8	625.5	611.6	102.3
2015년	60.3	53.1	113.5	50.8	37.3	136.1	606.3	573.1	105.8
2020년	62.8	52.9	118.8	44.0	31.9	137.6	583.8	548.9	106.4

주: '성비'는 여성 인구 100명당 남성의 인구임. 성비가 100이 넘으면 남성이 더 많음.

자료: 통계청(<https://kosis.kr>). 각 연도 인구총조사. 검색일: 2022. 4. 13.

농촌 청년층 내 성비불균형의 지속적 심화는 젠더 중립 표방 정책이 사실상 20~30대 남성들의 이해와 요구를 표준으로 하여 청년여성의 현실과 이해를 고려하지 못한 탓이 크다. 일례로 충청남도 및 충남 시군 청년 정책 추진계획 45개 중 31개가 일자리 정책으로, 금융부채 및 생활지원 등 빈곤 대응 정책은 매우 부족하고, 결혼, 출산, 육아 관련 정책은 0건으로 청년남성의 생애주기 중심 정책임이 강하게 비판되기도 하였다(태희원, 2018, pp.53-54).

모든 사회는 생애단계(life stage)와 생애영역(life areas)을 규제하고 조절하는 젠더 규범과 제도를 갖는데, 이러한 '성별화된 생애과정 체제(gendered life-course regime)'는 ① 가족임금(남성 생계부양 규범), ② 노동시장 성별 분

절, ③ 여성=일과 가족양육 병행, 남성=일과 직업 성취 중심으로 조직된 일상의 노동시간표를 작동원리로 한다(Krüger, 2003). 이에 따라 여성과 남성의 생애과정은 일과 가족에 대한 책임·역할 기대의 차이로 인해 다르게 구조화된다.

청년기는 결혼, 출산, 초기 양육기를 거치는 시기이고, 성인기의 성별 격차가 본격화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가족 구성과 재생산 활동, 그로 인한 여성의 경제 및 사회활동 단절 가능성을 청년기 삶의 조건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성인 이행기 전후에 나타나는 성별 격차는 일생동안 지속적인 성별 불평등으로 확대·재생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촌’이라는 지역적 맥락뿐만 아니라 ‘성별’이 교차하여 만들어지는 배제와 차별의 지점을 파악하고 사회·정책적 지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행연구들은 농촌 사회에 성별에 따른 역할 기대가 특히 더 강하게 구분되어 있어 젊은 여성에게 요구되는 문화적 규범에 더 억압적인 현실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농촌 청년여성의 보유 자원 및 자원 접근성이 취약함을 공히 지적하였다. 농촌 청년여성들의 대다수는 농촌이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별 문화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며(태희원, 2018), 영농기반 없이 귀농한 청년여성 농업인들조차 농지 등 농업기반 확보의 어려움만큼이나 여성에 대한 저평가, 일상적 성희롱과 성적 대상화, 안전하지 못한 주거환경, 일·가정 양립 부담 등이 같은 정도로 문제적이라 하였다(이순미 외, 2020). 특히 무연고지로 귀농한 비혼 청년여성은 영농과 농촌 생활 전반에서 취약성이 커서 빈곤 상태에 처하기 쉽고 성폭력 위험도 높은 것으로 지적되었다(태희원 외, 2021).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면, 가장이자 경제적 주체인 남성에게는 일자리와 소득 중심의 정책으로도 충분할 수 있으나, 여성은 그것만큼 인권, 안전, 복지 정책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농촌 지역 청년층 인구의 성비 불균형은 결혼과 출산의 인구 재생산 차원만 위협하지 않는다. 가부장적 관행과 제도의 지속으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가치와 문화 다양성이 부재한, 그래서 여성뿐만 아니라 젊은 남성들도 기피하는 농업·농촌이라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 진로와 생애기획을 탐색하는 청년기라는 생애주

기의 특성상 평등과 다양성에 대한 선호는 높은 반면 성차별주의는 연령차별주의와 연결되어 있어 농촌 사회에서 ‘청년’이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가늠하는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성평등이 농촌 청년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연구는 농촌 청년의 삶의 각 영역별 보유 자원, 자원에 대한 접근성, 가치관, 사회와 정책에 대한 요구 등에서의 성별 격차를 분석하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농촌 청년 생활실태의 성별 격차 분석은 농촌 청년과 관련한 젠더 이슈를 특정하고 성인지적 농촌 청년 정책의 방향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연구에서 ‘농촌 청년’은 읍면에 거주하는 만 19~39세인 사람들로 정의하였다. 분석에는 통계청 승인통계 중 읍면 지역을 변별해 낼 수 있는 데이터 그리고 이 연구에서 1,852명(농촌 청년남성 660명, 농촌 청년여성 549명, 도시 청년남성 318명, 도시 청년여성 3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였다.

제2장

경제활동과 소득



2

경제활동과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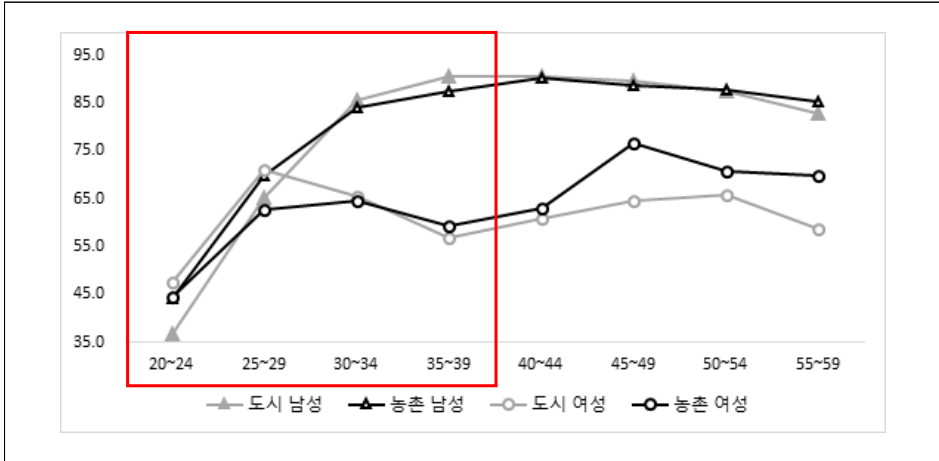
1. 경제활동과 일자리

1.1. 취업률과 여성의 경력단절

통계청의 2021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취업자 비율은 농촌 청년남성 71.5%, 도시 청년남성 70.7%, 도시 청년여성 59.5%, 농촌 청년여성 56.8% 순으로 농촌 청년여성의 취업률이 가장 낮다. 농촌과 도시 모두 여성의 고용은 경력단절 패턴인 M자형 곡선을 나타내는데, 청년기 취업률의 정점이 도시 여성은 20대 후반, 농촌 여성은 30대 전반으로 20대 후반 여성 취업률의 도농 간 차이가 크다. 달리 말하면, 도시 여성은 30대에 경력단절이 시작되는 전형적 M자형 곡선을 보이지만 농촌 여성은 이보다 이른 20대 후반부터 경력단절이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림 2-1>.

〈그림 2-1〉 성별, 연령별 취업률

단위: %, 세



주: 동부 거주자를 도시 청년, 읍면 거주자를 농촌 청년으로 구분함. 표본 수는 농촌 청년남성 8,794명, 청년 여성 8,515명임.

자료: 통계청(<https://mdis.kostat.go.kr>). 2021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검색일: 2022. 5. 20. 원자료를 저자 분석.

20대 후반 농촌 여성의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이유를 비경제활동 이유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도시 청년여성에 비해 20대 후반의 ‘육아, 돌봄, 가사’로 인한 비경제활동 비율이 2.5배 이상 높다. 도시 청년여성의 경우 ‘육아, 돌봄, 가사’는 30대의 주된 비경제활동 이유로 나타나지만, 농촌 청년여성은 20대 후반 부터 주된 이유로 나타나 가족책임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농촌 여성에게는 더 이른 나이에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농촌과 도시 모두 청년남성은 ‘진학준비·재학’이, 청년여성은 ‘육아, 돌봄, 가사’가 가장 큰 비경제활동 이유여서 청년기 생애과정이 남성은 자신의 인적 자본 형성에, 여성은 돌봄에 집중되는 성별 이원 구조로 진행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2-1>.

〈표 2-1〉 비경제활동인구 현황

단위: %, 세

구분	여성					남성					
	전체	연령				전체	연령				
		19~24	25~29	30~34	35~39		19~24	25~29	30~34	35~39	
농촌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40.6	54.0	33.3	34.4	38.9	24.9	54.0	25.3	13.9	10.5
	일거리 없음	1.6	1.3	2.0	1.2	1.9	1.7	1.7	2.4	1.8	1.0
	기술, 경험, 나이 부족	0.0	0.1	0.1	0.0	0.0	0.1	0.0	0.1	0.3	0.1
	근로능력 상실 (심신장애 등)	1.1	1.2	0.4	2.2	0.6	1.7	3.3	1.4	0.6	1.8
	육아, 돌봄, 가사	19.8	3.2	15.2	26.0	33.6	0.6	0.3	1.4	0.0	0.6
	진학준비, 재학	9.3	31.3	2.7	2.0	0.0	8.1	31.6	4.1	0.0	0.1
	직업훈련, 취업준비	5.3	12.4	7.1	1.1	0.8	6.5	5.6	11.8	5.4	3.1
	그냥 쉬었음	3.4	4.3	5.6	2.1	1.8	4.2	5.6	3.1	4.8	3.6
	기타(군입대 등)	0.2	0.2	0.3	0.0	0.3	1.9	6.0	1.0	1.0	0.3
도시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36.8	50.5	23.7	31.0	41.2	25.1	61.5	27.6	10.8	7.2
	일거리 없음	1.4	1.2	1.9	1.6	0.7	1.9	1.7	2.7	1.5	1.7
	기술, 경험, 나이 부족	0.1	0.1	0.2	0.2	0.1	0.2	0.3	0.2	0.1	0.1
	근로능력 상실 (심신장애 등)	0.4	0.4	0.4	0.3	0.4	0.7	0.9	0.9	0.7	0.4
	육아, 돌봄, 가사	16.7	1.5	6.0	23.2	36.7	0.2	0.0	0.2	0.2	0.4
	진학준비, 재학	10.3	36.1	3.2	0.5	0.3	11.6	44.0	7.9	0.8	0.1
	직업훈련, 취업준비	5.0	7.9	8.1	2.9	1.0	5.9	5.2	11.8	4.2	1.9
	그냥 쉬었음	2.6	2.7	3.5	2.2	1.9	3.4	5.3	3.4	3.1	2.4
	기타(군입대 등)	0.3	0.6	0.2	0.1	0.2	1.2	4.0	0.6	0.3	0.4

자료: 통계청(<https://mdis.kostat.go.kr>). 2021년 경제활동조사. 검색일: 2022. 5. 20. 원자료를 저자 분석.

가족 책임으로 인한 농촌 여성의 경력단절이 왜 도시보다 이른 나이부터 진행 될까? 혼인행태와 일·가정 양립 기반 차이가 복합된 결과라고 추측된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의 초혼연령은 읍면동 구분 통계가 없어 혼인시기의 도농 간 차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2021년 기준 수도권 및 광역시 여성의 초혼연령은 31세 이상이지만, 도농 복합도는 30.18~30.89세로 대도시보다 지방 중소도시 이하의 여성들이 약간 더 일찍 결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 인구총조사의 연령별 혼인율을 보더라도 농촌 여성의 상대적으로 이른 가족형성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20대 후반 농촌 여성의 기혼자 비율은 28.6%로, 같은 연령대 도시 여성 16.6%, 농촌 남성 11.8%, 도시 남성 7.1%보다 높다<표 2-2>.

일찍 결혼과 출산을 하더라도 아동 돌봄의 사회적 기반이 탄탄하다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겠지만, 농촌 지역 사업체는 육아휴직제, 유연근로제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사업체 비율이 도시보다 높고,¹⁾ 아동 보육 및 교육 시설은 도시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

<표 2-2>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수의 도농 간 비교

단위: 개소

지역	지표	2006년	2011년	2016년
도시 (일반시)	0~5세 천 명당 어린이집 수	13.2	18.8	21.1
	평균 유치원 수	58.6	61.9	67.9
	초등학교 수 / 1km ² 당 초등학교 수	31.2/0.35	33.7/0.38	35.1/0.40
도농복합시	0~5세 천 명당 어린이집 수	13.1	18.6	20.1
	평균 유치원 수	52.3	56.4	60.7
	초등학교 수 / 1km ² 당 초등학교 수	38.2/0.063	39.5/0.066	40.2/0.068
농촌(군)	0~5세 천 명당 어린이집 수	10.6	12.9	15.2
	평균 유치원 수	19.5	17.7	16.4
	초등학교 수 / 1km ² 당 초등학교 수	16.3/0.028	15.3/0.026	14.9/0.025

자료: 김은설 외(2018, p.21).

1.2. 일자리 접근성: 구직, 복수일자리, 일자리 선호도

청년들이 최종학교 이후 첫 취업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은 도시 청년여성 10.1개월, 읍면 거주 청년여성이 대략 12.2개월로 모든 지역에서 여성들의 취업이 남

1) 육아휴직제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업체 비율은 서울 및 광역시 48.0%, 도농 복합도 46.6%이고, 시간선택제,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로제도를 한 가지라도 시행하는 사업체 비율은 서울 및 광역시 41.2%, 도농 복합도는 36.1%로 차이가 있다(고용노동부(<https://kosis.kr>). 2020년 일가정양립실태조사. 검색일: 2022. 5. 22.). 사업체 소재지를 시군구 수준에서 비교하면 군 지역 사업체의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률은 더 낮을 것으로 추측된다.

성보다 약간 더 빠르다. 초직 기간이 긴 것에는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시장 구조적 이유도 있고, 개인들이 자신의 인적 자본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으려는 개인적 이유도 있다. 최근에는 일자리 부족의 심화로 ‘좋은 일자리’보다 ‘가능한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어 청년들의 이른 취업이 불안정 하위직 노동경로의 입직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된다(이순미, 2017). 이를 고려하면 여성의 상대적으로 이른 첫 취업이 고용안정성이나 고용의 질 측면에서 그리 긍정적인 현상은 아닐 가능성이 있다<표 2-3>.

주목할 점은 동 지역과 면 지역 거주 청년들은 학력이 높을수록 첫 취업까지의 기간이 짧아지는 데 비해 읍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남녀 모두 고학력자의 초직 미취업 기간이 길고 그 기간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길다는 점이다. 이는 읍 지역이 도시보다 고학력 청년들이 취업할만한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면 지역은 고학력 직종에 대한 기대 자체가 형성되기 어려우므로 가능한 한 일자리에 빨리 취업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표 2-3> 최종학교 이후 첫 취업까지의 기간

단위: 개월

구분	여성				남성			
	소계	고졸 이하	대학 재학 이상	대학원 재학 이상	소계	고졸 이하	대학 재학 이상	대학원 재학 이상
면부	12.2	12.7	12.6	2.1	15.8	16.7	16.1	2.0
읍부	12.4	11.6	11.9	18.4	13.4	17.4	11.8	12.9
동부	10.1	12.6	10.4	4.7	14.0	20.1	13.1	4.8

자료: 저자 작성.

지역과 성별 무관하게 청년들의 주된 구직 경로는 직업알선기관인데, 도시 청년들이 농촌보다 민간기관을 활용하는 비율이 높고 농촌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친인척, 지인 등의 사적 관계를 활용하는 비율이 도시 청년보다 높다. 성별로는 도시 여성의 민간기관 활용 비율이 가장 높고 농촌 여성은 대중매체의 구직 정보 활용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현저히 높다. 이 결과는 사적 연줄과 직업 알선 인프

라가 부족한 농촌 여성의 구직이 다른 집단에 비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표 2-4>.

<표 2-4> 구직 경로

단위: %

구분	농촌		도시	
	여성	남성	여성	남성
공공 직업알선기관	33.2	33.9	34.6	31.7
민간 직업알선기관	28.4	32.7	39.0	36.6
대중매체(신문, 잡지, 광고 등)	27.9	21.2	20.1	22.2
학교, 학원 추천	0.8	0.2	1.3	0.9
친인척, 지인	9.4	11.5	4.4	7.9
기타	0.4	0.6	0.5	0.7

자료: 통계청(<https://mdis.kostat.go.kr>). 2021 경제활동인구조사. 검색일: 2022. 5. 20. 원자료를 저자 분석.

청년들이 부업을 하는 비율은 20% 미만으로 높지 않고 도시 청년들의 부업 비율이 농촌 청년보다 약간 더 높다. 지역과 성별에 무관하게 청년들은 다중일자리 보다는 주된 일자리에 전념하는 방식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이직 횟수는 도시, 농촌 모두 여성들이 더 많은데 농촌 청년들의 이직 횟수 성별 차이가 도시보다 더 크다. 이는 고용 불안정성이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심각하고 특히 농촌 청년 여성의 고용 불안정성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표 2-5>.

<표 2-5> 부업 여부 및 총 이직 횟수

단위: %

구분	여성			남성		
	읍	면	동	읍	면	동
부업 여부	15.7	10.6	18.3	16.0	10.6	17.5
총 이직 횟수	2.52	2.71	2.08	1.87	1.65	1.53

자료: 저자 작성.

농촌 청년여성들이 남성보다 이직 횟수가 많은 등 고용 불안정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선호하는 일자리 기준에서 급여(임금)와 안정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

리 높지 않다. 안정성은 여전히 중요한 일자리 기준이긴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농촌 청년여성은 직무 적성과 복지 수준을 중시하였고, 도시 청년여성도 복지 수준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와 농촌 모두 남성들은 급여, 안정성 등 ‘좋은 일자리’의 전통적 요소를 중시하지만, 여성들은 안정성과 복지 수준을 공히 중시하는 성별 차이가 있고, 노동복지를 중시하는 태도는 농촌 청년여성이 가장 강하다<표 2-6>.

〈표 2-6〉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단위: %

구분	농촌		도시	
	여성	남성	여성	남성
분위기 좋은 회사	7.3	8.7	7.1	8.3
급여가 높은 회사	9.7	17.8	12.4	19.0
유명한 회사	0.5	1.0	0.9	1.0
안정적인 회사	24.4	29.7	26.8	26.1
퇴근이 빠른 회사	4.4	1.9	3.2	1.8
발전 가능성이 높은 회사	7.3	8.4	7.2	12.2
직무가 적성에 맞는 회사	21.2	17.1	18.8	18.8
복지 수준이 좋은 회사	25.0	15.0	23.5	12.7

주: 1순위 응답결과만 제시함. 농촌 청년 표본 수는 남성 371명, 여성 343명임.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https://www.nypi.re.kr/archive/mps>). 2020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검색일: 2022. 3. 22. 원자료를 저자 분석.

1.3. 고용의 질

1.3.1. 종사상 지위와 고용형태

여성이 남성보다, 농촌 청년이 도시 청년보다 상용직 비율이 낮고 임시직 비율이 높다. 농촌 청년 중에는 여성은 임시직 비율이 높고, 남성은 자영업과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이 더 높아 어느 쪽이 더 불안정하다 단언하기는 어렵다. 다만, 농촌 여성은 20대와 30대 모두 임시직 비율이 높은 반면, 남성은 임시직 비율이 20대에만 높은 차이가 있다. 즉, 농촌 남성의 경우 20대의 임시직 비율이 30대가 되면 상용직이나 자영업자로 흡수되어 나이가 들수록 종사상 지위가 안정되는 경향

성을 갖는다. 이러한 패턴은 도시 청년들에게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농촌 청년여성에게 고용 불안정은 청년기 전체에 걸쳐 지속된다<표 2-7>.

<표 2-7> 종사상 지위

단위: %

구분			여성			남성		
			전체	20대	30대	전체	20대	30대
농촌 (읍면)	임금 근로자	상용직	63.4	60.7	65.6	62.5	54.5	67.4
		임시직	23.3	27.5	20.0	15.9	27.2	8.9
		일용직	1.9	3.2	0.9	3.4	4.0	3.1
	비임금 근로자	자영업자	6.8	5.3	7.9	12.9	6.8	16.7
		무급가족종사자	4.6	3.3	5.6	5.3	7.4	4.0
도시 (동)	임금 근로자	상용직	67.3	63.1	71.6	70.0	63.3	73.7
		임시직	21.9	29.1	14.8	14.4	25.6	8.2
		일용직	2.1	3.1	1.2	3.4	4.4	2.9
	비임금 근로자	자영업자	7.4	4.0	10.5	11.5	6.0	14.7
		무급가족종사자	1.4	0.8	1.9	0.6	0.8	0.6

자료: 통계청(<https://mdis.kostat.go.kr>). 2021년 경제활동조사. 검색일: 2022. 5. 20. 원자료를 저자 분석.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는 도농 간 차이보다 성별 간 차이가 두드러진다. 도시와 농촌 모두 여성은 남성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그중에서도 시간제 비율이 높다. 여성 간에는 농촌 여성이 특수형태 고용 비율이 약간 더 높고, 도시 여성은 초단시간 고용 비율이 약간 더 높은 차이가 있다<표 2-8>.

〈표 2-8〉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

단위: %

구분		여성			남성		
		소계	20대	30대	소계	20대	30대
농촌	정규직	63.9	55.7	70.8	72.8	65.8	77.7
	비정규직	36.1	44.3	29.2	27.2	34.2	22.3
	한시적	13.6	17.4	10.5	11.5	12.8	10.6
	기간제	4.6	5.3	4.1	3.2	4.5	2.4
	비기간제	9.0	12.1	6.4	8.3	8.3	8.2
	시간제	16.9	21.0	13.5	7.8	14.6	3.2
	단시간	11.9	13.3	10.7	5.6	9.2	3.2
	초단시간	5.0	7.7	2.8	2.2	5.4	-
	비전형	5.6	5.9	5.2	7.8	6.8	8.4
	특수형태 그 외	3.4 2.2	2.3 3.6	4.4 0.8	1.5 6.3	0.8 6.0	2.0 6.4
도시	정규직	64.5	58.0	72.1	75.3	64.0	82.2
	비정규직	35.5	42.0	27.8	24.7	36.0	17.7
	한시적	13.5	15.2	11.4	10.5	13.4	8.6
	기간제	5.2	7.2	2.8	3.1	5.1	1.8
	비기간제	8.3	8.0	8.6	7.4	8.3	6.8
	시간제	19.0	23.9	13.2	8.0	16.4	2.8
	단시간	11.9	13.7	9.8	5.8	11.5	2.3
	초단시간	7.1	10.2	3.4	2.2	4.9	0.5
	비전형	3.0	2.9	3.2	6.3	6.2	6.3
	특수형태 그 외	1.7 1.3	1.2 1.7	2.2 1.0	1.7 4.6	1.6 4.6	1.8 4.5

주 1) '그 외 비전형 고용형태'는 파견, 용역, 가정 내, 일일고용을 합한 것임.

2) 농촌 청년 표본 수는 남성 960명, 여성 922명임.

자료: 통계청(<https://mdis.kostat.go.kr>). 2021년 경제활동조사 근로형태 부가조사(8월). 검색일: 2022.

5. 20. 원자료를 저자 분석.

시간제와 특수형태 고용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워 비정규직 범주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고용형태로 지적된다. 특히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대상인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²⁾은 도시와 농촌 모두 20대 여성들에게서 매우 높다.

²⁾ 초단시간 노동은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항에 의해 퇴직금, 주휴일, 연차휴가의 적용에서 제외됨(근로기준법(시행 2

따라서 청년여성의 고용 문제는 농촌과 도시 모두 고용 불안정과 노동 보호로부터의 배제 둘 다라고 할 수 있다.

1.3.2. 임금

임금 격차는 농촌과 도시의 지역 차이보다 고용형태와 성별 차이가 두드러진다. 정규직 월평균임금은 농촌 청년여성이 246.4만 원으로 가장 적고, 도시 청년남성이 321.4만 원으로 가장 많다.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은 도시 청년여성이 152.1만 원으로 가장 적고, 도시 청년남성이 208.8만 원으로 가장 많다. 농촌과 도시 모두 정규직 남성의 임금 수준이 높고, 비정규직 여성의 임금이 현저히 낮다. 고용형태 간 임금 격차와 성별 임금 격차의 이중 효과로 불안정 고용형태에 있는 청년여성들의 근로빈곤 가능성이 남성보다 큰 것이다. 성별 임금 격차는 농촌 청년여성만의 이슈는 아니지만 지역을 막론하고 중요한 젠더 이슈 중 하나다(표 2-9).

월평균임금의 성별 격차는 성별 간 총 근로시간 차이로 일정 부분 설명이 가능하다. 농촌과 도시 모두 동일 고용형태 내 주당 총 근로시간이 여성이 더 적기 때문에 월평균임금이 그만큼 더 적을 수 있다. 그러나 시간당 임금의 성별 격차는 근로시간 양과 무관하므로 성별 임금불평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별 임금차이와 임금 성비는 농촌이 도시보다 약간 더 양호한 편이다. 그렇다고 농촌이 도시보다 고용 평등 수준이 높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농촌 청년여성의 정규직 월평균임금과 시간당 임금 액수가 가장 적기 때문이다. 다만, 농촌 청년남성의 임금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어서 성별 임금 격차가 적은 것이다.

그런데 농촌 청년 일자리의 경우 도시와 달리 고용 불안정성과 임금의 관계가 단선적이지는 않다. 농촌 청년남성은 비전형 근로자의 임금이 다른 집단에 비해

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18조(<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검색일: 2022. 5. 24.).

높고, 여성은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이는 농촌 지역이 계절적 시간 노동 수요가 많아서 불안정 고용형태라도 임금 수준은 높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농촌 여성의 경우 시간제 근로의 총 노동시간 자체가 길지 않기 때문에 비전형 근로자 남성에 비해 충분한 소득을 벌지 못하고 있다.

이 결과는 농촌 청년여성의 일자리 이슈가 고용의 질 개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 기회 확대를 포함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복수 일자리, 노동시장 외부에서 발생하는 일거리 등 다양한 노동 생애 기획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전략일 수 있다.

〈표 2-9〉 월평균임금, 주당 평균근로시간, 시간당 임금

단위: 만 원

구분	월평균임금				1주 평균 근로시간		시간당 임금				
	여성 (A)	남성 (B)	임금 차이 (A-B)	임금 성비	여성	남성	여성 (A)	남성 (B)	임금 차이 (A-B)	임금 성비	
농촌	정규직	246.4	296.1	-49.7	83.2	37.8	40.9	6.9	7.5	-0.6	92.0
	비정규직	159.1	203.5	-44.4	78.2	29.7	34.5	5.8	6.3	-0.5	92.1
	한시적	212.6	245.8	-33.2	86.5	40.1	42.7	5.6	6.0	-0.4	93.3
	시간제	104.8	94.9	9.9	110.4	21.0	20.6	5.6	4.7	0.9	119.1
	비전형	193.1	250.4	-57.3	77.1	30.7	36.5	7.0	8.3	-1.3	84.3
도시	정규직	265.8	321.4	-55.6	82.7	36.4	39.8	7.6	8.5	-0.9	89.4
	비정규직	152.1	208.8	-56.7	72.9	27.2	34.2	5.6	6.2	-0.6	90.3
	한시적	226.7	280.8	-54.1	80.7	36.7	40.4	6.4	7.1	-0.7	90.1
	시간제	91.5	96.3	-4.8	95.0	19.1	21.9	5.1	4.9	0.2	104.1
	비전형	199.5	233.1	-33.6	85.6	36.0	39.7	5.6	6.5	-0.9	86.2

주 1) 임금성비는 시간당 남성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여성의 임금 수준임.

2) 농촌 청년 표본 수는 남성 960명, 여성 922명임.

자료: 통계청(<https://mdis.kostat.go.kr>). 2021년 경제활동조사 근로형태 부가조사(8월). 검색일: 2022. 5. 20. 원자료를 저자 분석.

1.3.3. 일자리 만족,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인사관리는 모든 청년들이 불만족하는 사항이었고, 그 외는 지역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 도시 청년남성은 임금과 복리후생, 여성은 임금에만 불만족하였다. 농촌 청년남성은 장래성에 불만족하고, 농촌 청년여성들은 인사관리를 제외한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만족하여 다른 집단과 차이를 보였다. 청년들 모두 '직장 내 폭력 방지 노력'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농촌 청년여성은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표 2-10>.

〈표 2-10〉 일자리 만족도 1: 근로조건

단위: 점

구분	농촌		도시	
	여성	남성	여성	남성
하는 일(업무)	3.39	3.23	3.38	3.30
인사관리(증진, 배치, 이동)	2.95	2.98	2.91	2.94
임금	3.02	3.00	2.90	2.93
복리 후생	3.03	3.01	3.01	2.97
장래성	3.08	2.98	3.08	3.04
근무 환경(안전, 위생 등)	3.36	3.17	3.40	3.22
인간관계	3.46	3.37	3.40	3.41
근로시간	3.39	3.22	3.37	3.19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3.39	3.25	3.35	3.28
직장 내 폭력 방지 노력	3.61	3.56	3.72	3.68
직장 내 교육 훈련 기회	3.28	3.27	3.38	3.29
전반적 일자리 만족도	3.26	3.21	3.31	3.22

주 1) '만족도 평균은 '매우 불만족 1점~매우 만족 5점'의 평균값임.

2) 농촌 청년 표본 수는 남성 898명, 여성 801명, 도시 청년 표본 수는 남성 3,728명, 여성 3,825명임.

자료: 통계청(<https://mdis.kostat.go.kr>). 2021 사회조사(복지·사회참여·여가·소득과 소비·노동). 검색일:

2022. 5. 20. 원자료를 저자 분석.

한편, 농촌의 청년들은 남녀 모두 주된 직업과 자신의 전공 일치도는 불만족스러워하지만 본인의 조건에 맞게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반면, 도시 청년들은 주된 직업이 자신의 분야에 부합하지만 대우는 적정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다. 전공 일치

도와 적정 대우에 대한 인식에서 성별 차이는 거의 없지만, 실직 불안과 이직 의향은 농촌과 도시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더 불안해하고 이직 의향도 높다<표 2-11>.

<표 2-11> 일자리 만족도 2: 전공 일치도, 적정 대우, 실직 불안, 이직 의향

단위: 점

구분	여성				남성			
	농촌			도시	농촌			도시
	전체	읍	면		전체	읍	면	
전공 일치도	2.87	2.90	2.81	3.10	2.87	2.83	2.59	3.01
적정 대우	3.13	3.16	3.10	2.90	3.13	3.12	3.15	2.99
실직 불안	2.77	2.83	2.66	2.82	2.52	2.54	5.50	2.61
이직 의향	2.77	2.79	2.74	2.97	2.52	2.55	2.49	2.67

주: '전공 일치도'와 '적정 대우'는 5점 만점, '실직 불안'과 '이직 의향'은 4점 척도임.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내용에 동의함.

자료: 저자 작성.

농촌과 도시 모두 청년여성의 대부분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경험하였고, 남성들도 농촌은 61.1%, 도시는 71.3%가 괴롭힘 피해의 경험이 있었다. 공통적으로 많이 경험한 괴롭힘 유형은 '과도하거나 부당한 업무 배정', '병가, 휴직 등 권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압력', '인격적 무시, 감정적 폭력'이었다<표 2-12>.

여성들은 도시, 농촌 모두 남성에 비해 '인격적 무시, 감정폭력', '성희롱, 성추행' 피해의 경험률이 높고, 농촌 남성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안전하지 않은 업무 환경 노출' 경험률이 높다. 도시의 청년들은 남녀 모두 농촌보다 '교육훈련, 승진, 보상 등에서의 불합리한 차별' 경험률이 높고, '병가, 휴직 제약'은 도시에는 남성, 농촌에서는 면 거주 여성들의 경험률이 특히 높았다. 면 거주 여성들은 감정 폭력 피해 경험률도 다른 지역 여성들보다 높다.

정리하면, 도시 청년들은 농촌 청년들에 비해 업무 수행이나 직장 내 성취와 관련한 부당한 경험을 더 많이 보고하는 반면, 농촌에서는 특히 면 지역 청년여성의 노동권과 인권 침해 경험률이 높다.

〈표 2-12〉 직장 내 괴롭힘 경험(다중응답)

단위: %

구분	여성				남성			
	농촌			도시	농촌			도시
	전체	읍	면		전체	읍	면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 있음	83.0	73.6	89.3	90.2	61.1	66.7	53.4	71.3
과도하거나 부당한 업무 배정	48.6	51.2	44.4	54.0	41.0	39.5	43.4	47.7
물리적 폭력	2.1	1.6	2.9	2.1	5.1	4.1	6.7	6.5
혼자서 일하는 괴로움과 무서움	26.9	27.9	25.3	29.7	27.8	29.2	25.4	24.1
교육훈련, 승진, 보상 등에서의 불합리한 차별	24.0	26.2	20.6	40.1	26.6	27.6	25.2	41.7
병가, 휴직 등의 권리 요구 못하게 압력	36.2	32.1	42.8	31.6	35.1	38.4	29.8	41.1
성희롱, 성추행	12.7	12.3	13.2	20.3	2.5	3.5	1.0	5.9
인격적 무시, 감정 폭력	42.9	41.3	45.5	43.1	36.6	35.2	38.9	32.6
안전하지 않은 업무환경 노출	14.9	14.5	15.4	13.0	25.7	24.9	26.9	17.9

주: 괴롭힘 종류별 경험률은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의 비율임.

자료: 저자 작성.

2. 소득과 경제적 독립성

청년이 가구주로 있는 가구의 가계 동향을 살펴보면, 농촌과 도시 모두 가구형태와 무관하게 여성 가구주의 가구원당 소득이 남성 가구주보다 월등히 낮는데, 그 차이는 도시보다 농촌이 훨씬 더 크다. 가구원당 월지출액에서도 농촌의 여성 가구주 가구가 가장 낮고, 특히 다인가구로 있는 농촌 여성 가구주 가구의 월지출액이 가장 낮다. 농촌에서는 여성이 스스로를 부양하거나 타인을 부양하는 것에서 소득 취약성이 있고, 절약의 내핍 생활로 소득 부족에 대응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표 2-13).

〈표 2-13〉 청년 가구주 가구의 가계 동향

단위: 만 원

구분		청년여성가구주 가구			청년남성가구주 가구		
		소계	1인가구	다인가구	소계	1인가구	다인가구
농촌	월소득액	255.3	281.3	234.6	312.6	348.8	296.4
	월지출액	176.3	197.0	159.9	228.0	207.7	237.1
도시	월소득액	271.3	271.6	270.7	325.0	309.8	335.0
	월지출액	203.8	207.5	196.7	240.1	218.5	254.1

주 1) 소득과 지출액 모두 가구원 수로 보정한 가구균등화 금액임.

2) 청년 가구주 가구 표본 수는 농촌 지역 남성 434명, 여성 109명, 도시 지역 남성 2,770명, 여성 1,430명임.

자료: 통계청(<https://kosis.kr>). 2021 가계동향조사. 검색일: 2022. 5. 22.

농촌 여성은 월소득액도 가장 낮고, 그에 따라 소득이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비율도 67.2%로 가장 높다. 농촌과 도시 모두 여성은 소득은 낮고 부채는 높아 남성보다 재정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표 2-14).

〈표 2-14〉 소득 충분성과 채무 현황

단위: %, 만 원

구분		여성			남성		
		소계	1인가구	다인가구	소계	1인가구	다인가구
농촌	소득 불충분	67.2	71.7	66.7	64.7	61.4	65.6
	부채 있음	49.5	41.7	50.5	46.1	34.6	48.7
	부채 규모	5,323.8	2,144	5,725.8	5,170.3	3,911.7	5,463.2
도시	소득 불충분	64.9	64.4	64.8	61.6	59.3	61.9
	부채 있음	50.6	35.6	54.2	47.9	41.7	50.5
	부채 규모	7,203	2,649.2	8,266.2	6,970.4	3,564.8	7,637.4

자료: 저자 작성.

생활비 영역 중 식비가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청년 전체의 공통된 현상이지만 그 외 영역에서는 지역과 성별 차이가 확연하다. 농촌 청년들은 도시 청년들보다 주거비 부담 응답률이 절반 수준으로 낮고 차량운행·교통비 부담 응답률이 높다. 농촌 내에서 남성들은 차량운행·교통비 부담 응답률이 여성보다 높고, 여성들은 의료·보험료가 부담스럽다는 응답률이 높다. 농촌 여성의 의료·보험료 응답률은

다른 집단의 2배 가까이 높다<표 2-15>.

<표 2-15> 가장 부담되는 생활비 부문

단위: %

구분	농촌		도시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식비	58.4	58.6	50.9	57.7
주거 및 주거관리비	14.2	13.3	26.8	20.4
교육비	3.4	3.6	8.1	5.7
통신비	3.4	4.3	3.1	2.0
차량운행 및 교통비	9.2	12.8	5.8	6.9
교양 오락비	1.5	2.5	0.7	1.4
의료 및 보험료	8.6	4.1	3.4	5.3

주: 1순위 응답만 제시함.

자료: 저자 작성.

제3장

가족 가치관과 가족 구성



3

가족 가치관과 가족 구성

가족구성권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가족/공동체를 구성하고, 어떠한 생활공동체라 하더라도 차별 없는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한가람, 2013, p.265).³⁾ 이 개념은 기존의 가족 규범과 제도가 혼인, 혈연 외 다른 결합과 관계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오늘날 ‘가족 위기’의 실체라고 진단하고, ‘누구와 어떻게 살 것인가’는 개인의 권리임을 강조하며 다양한 생활 동반자 관계, 비혈연 공동체 가족, 1인가구 등의 법적 지위 보장과 사회적 인정 체계 마련을 요청한다(김순남, 2021).

비혼과 만혼의 증가,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 등의 현상은 한국인의 가족 형성 구조가 탈표준화, 탈제도화되었음을 보여준다(남춘호, 남궁명희, 2012; 이순미, 2017). 청년들의 이러한 연애, 결혼, 출산 포기(연기)가 취업과 경기침체 등의 경제적 불확실성 때문에 강제된 것으로 보는 설명이 지배적이긴 하지만, 최근

3) ‘가족구성권’ 개념은 단체, 활동가, 연구자, 법률가들로 구성된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가족구성권 연구 모임’(2006년 설립, 2019년 ‘가족구성권연구소’로 전환)에서 제출된 이후 사회정책적으로 확산되었다(한가람, 2013, pp.263-264). 가족구성권연구소의 상세 정보는 <http://familyequalityrights.org>를 참조하였다(검색일: 2022. 4. 13.).

에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강력한 동인으로 보는 설명이 힘을 얻고 있다(김순남, 2016; 김혜경, 2017; 이순미,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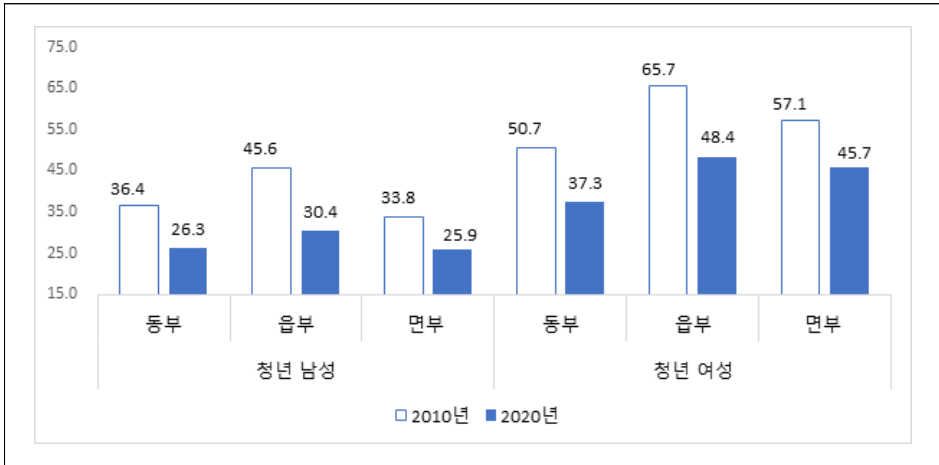
가치관의 변화는 결혼과 출산을 당연시하는 규범의 해체를 요구한다. 농촌 청년여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농촌살이의 어려움’ 중 하나가 ‘결혼과 출산의 강압적 권유’, ‘비혼에 대한 낙인’이었다. 즉, ‘정상가족 규범’이 여성의 농촌 유입과 정착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이다. 따라서 청년들의 가족 가치관과 가족 관련 행위성을 있는 그대로의 사회적 사실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1. 혼인과 가구형태

지난 10년간 청년층의 기혼자 비율은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감소 추세는 여성들에게서 두드러진다. 여성의 기혼자 비율 감소폭이 남성보다 더 크고, 여성 내에서도 농촌 여성의 기혼자 비율 감소폭이 도시 여성보다 크다(그림 3-1).

기혼자 비율 감소 추세는 여성이 더 급격하지만 기혼자 비율 자체는 여성이 남성보다 월등히 높다. 2020년 청년남성의 기혼자 비율은 25.9~30.4%로 매우 낮지만, 여성의 경우는 동 지역만 낮은 편이고 읍과 면 지역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여성들이 결혼을 하였다. 농촌 청년여성의 상대적으로 높은 기혼자 비율은 결혼과 가족에 대한 전통적 태도가 농촌여성에게 더 강해서일 수도 있고, 반대로 농촌 지역사회의 전통적 규범의 압력 때문에 40세가 넘는 비혼 여성이 농촌에 거주하지 못하고 떠난 결과일 수도 있다.

〈그림 3-1〉 지난 10년간 청년층의 기혼자 비율 변화(2010~2020년)



자료: 통계청(<https://kosis.kr>). 각 연도 인구총조사. 검색일: 2022. 4. 13.

2010년 이후 청년층의 가구형태는 도시와 농촌 모두 기혼가구 비율은 감소하고 비혼 상태에서 부모/친척과 동거하거나 1인가구로 사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특히 1인가구 증가율이 급격하다(표 3-1).

농촌 청년여성을 제외한 다른 집단은 비혼 상태에서 부모/친척과 동거하는 형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지만, 읍면의 농촌 청년여성만 기혼가구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높은 차이가 있다. 또한 1인가구 비율 자체는 농촌 청년여성이 가장 낮지만 1인가구 증가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비혼 여성 1인가구의 경제 및 생활안정, 안전 등이 농촌 청년정책에서 중요 이슈로 다루어져야 할 이유가 된다.

〈표 3-1〉 청년의 가구형태 변화

단위: %

구분	면부			읍부			동부			
	2010년	2020년	증감률	2010년	2020년	증감률	2010년	2020년	증감률	
여성	기혼가구	62.3	50.6	-18.8	68.4	51.0	-25.4	51.7	38.5	-25.5
	미혼 부모/친척 동거	31.4	38.8	23.6	25.0	36.5	46.0	38.0	43.7	15.0
	미혼 1인가구	4.3	8.6	100.0	4.7	10.7	127.7	8.7	16.1	85.1
	미혼 비혈연가구	2.0	2.0	0.0	1.8	1.8	0.0	1.6	1.8	12.5
남성	기혼가구	39.5	27.5	-30.4	50.6	32.5	-35.8	39.6	27.9	-29.5
	미혼 부모/친척 동거	45.8	51.6	12.7	34.7	44.7	28.8	45.1	49.8	10.4
	미혼 1인가구	9.2	15.9	72.8	10.4	19.3	85.6	12.9	20.1	55.8
	미혼 비혈연가구	5.5	5.0	-9.1	4.3	3.5	-18.6	2.3	2.1	-8.7

자료: 통계청(<https://kosis.kr>). 각 연도 인구총조사. 검색일: 2022. 4. 13.

2. 결혼관과 결혼 의향

지역과 성별을 불문하고 청년들은 절반 이상이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생각하는 반면, 60대 이상은 70% 이상이 결혼을 필수로 여겨 청년층과 노년층 간 인식의 차이가 세대 간 가치관의 단절이라 할 만큼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관의 세대 간 격차는 도시보다 농촌이, 농촌 내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크다. 이는 농촌 청년여성이 다른 청년들에 비해 결혼과 정상가족 규범의 통제를 크게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표 3-2〉.

세대 간 차이뿐만 아니라 청년층 내 성별 차이도 크다. 도시와 농촌 모두 여성들은 64% 이상이 결혼에 유보적이거나 부정적이지만, 남성은 50% 정도가 결혼을 필수로 여기고 있다. 즉, 결혼에 대한 욕구는 남성이 여성보다 강하고, 이 차이는 도시 지역이 농촌보다 크다.

〈표 3-2〉 결혼에 대한 태도

단위: %

구분	여성			남성			청년층 내 성별 차이 (A-C)
	청년(A)	60대 이상 (B)	세대 간 차이 (A-B)	청년(C)	60대 이상 (D)	세대 간 차이 (C-D)	
농촌	64.1	24.7	39.4	51.0	21.1	29.9	13.1
도시	68.2	30.1	38.1	47.0	20.5	26.5	21.2

주 1)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 응답비율을 합한 것임.

2) 농촌 청년 표본 수는 남성 910명, 여성 771명, 도시 청년 표본 수는 남성 3,872명, 여성 7,881명임.

3) 거주지역이 동부와 읍면부로만 구분되어 있음.

자료: 통계청(<https://mdis.kostat.go.kr>). 2020 사회조사(보건·교육·안전·가족). 검색일: 2022. 5. 20. 원 자료를 저자 분석.

현재 연애 중인 비혼 청년의 비율은 읍 거주 여성이 34.6%로 가장 높고, 면 거주 남성이 25.0%로 가장 낮다. 모든 지역에서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연애하는 비율은 더 높으나 결혼 의향은 훨씬 낮은 공통점을 보이는데, 이러한 성별 차이는 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크다. 또한 면 지역 청년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연애와 결혼 의향 자체가 많이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읍 지역 청년들의 연애와 결혼의향은 동 지역 청년들과 차이가 거의 없다〈표 3-3〉.

〈표 3-3〉 비혼 청년들의 연애 실천과 결혼 의향

단위: %

구분	면부		읍부		동부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현재 연애 중	28.3	25.0	34.6	31.6	30.4	29.7
결혼 의향 있음	32.0	42.1	37.8	45.5	34.5	45.2

자료: 저자 작성.

현재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결혼하기에 나이가 이르다'는 응답이 네 집단 모두 가장 높다. 그다음으로 남성들은 '소득·고용 불안정', 여성들은 '자기계발, 자아성취'를 이유로 꼽은 비율이 높다. 성역할 규범이 청년들의 결혼 지연·기피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3-4〉.

흥미로운 것은, 농촌 청년남성들은 '마땅한 사람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소득·

고용 불안정' 못지않게 높다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배우자상에 부합하는 여성이 없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겠으나, 농촌 청년의 높은 성비 불균형을 감안하면 실제로 여성 인구 자체가 부족하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한 해석일 것이다. 2020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30대 연령의 여성 인구는 남성 인구보다 읍 지역은 143,013명, 면 지역은 211,567명이 적다.

한편, '결혼 생각이 없다'는 응답비율은 도시와 농촌 모두 여성이 남성들보다 2배 가까이 높고, 그 차이는 농촌이 더 크다. 이는 청년여성들의 비혼이 상당 부분 적극적 비혼 선택, 나아가 '비혼주의'의 발현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3-4〉 비혼 청년들의 비혼 이유

단위: %

구분	농촌			도시		
	여성	남성	성별 차이	여성	남성	성별 차이
소득, 고용 불안정	10.5	16.5	-6.0	6.7	22.6	-15.9
집 마련, 결혼 비용 부담	10.9	12.1	-1.2	8.7	13.1	-4.4
직장 불이익, 병행 어려움	3.9	1.2	2.7	2.9	1.0	1.9
자기계발, 자아성취 집중	15.3	11.3	4.0	19.7	12.4	7.3
결혼하기에 이른 나이	35.4	32.7	2.7	33.9	34.2	-0.3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8.3	14.5	-6.2	9.6	6.4	3.2
출산, 양육, 가사 부담	3.1	0.0	3.1	5.5	0.7	4.8
결혼 생각 없음	10.0	4.8	5.2	9.8	5.0	4.8

주: 농촌 비혼 청년 표본 수는 남성 251명, 여성 231명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https://data.kihasa.re.kr/kihasa/kor/databank>). 2018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검색일: 2022. 5. 27. 원자료를 저자 분석.

도시와 농촌, 남성과 여성 모두 70% 이상이 비혼 동거에 찬성하며, 성별, 지역 간 차이는 적으나 노년층과의 가치관 차이는 매우 크다. 비혼 동거에 대한 높은 동의 수준은 청년들이 비혼 동거를 정규적인 파트너 결합 양식으로 간주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표 3-5).

〈표 3-5〉 비혼 동거에 대한 태도

단위: %

구분	여성			남성			청년층 내 성별 차이 (A-C)
	청년(A)	60대 이상 (B)	세대 간 차이 (A-B)	청년(C)	60대 이상 (D)	세대 간 차이 (C-D)	
농촌	73.6	36.0	37.6	79.9	41.8	29.9	-6.3
도시	75.1	36.3	38.8	77.3	38.4	26.5	-2.2

주 1) '전적으로 동의한다'와 '약간 동의한다' 응답비율을 합한 것임.

2) 농촌 청년 표본 수는 남성 910명, 여성 771명, 도시 청년 표본 수는 남성 3,872명, 여성 7,881명임.

3) 거주지역이 동부와 읍면부르만 구분되어 있음.

자료: 통계청(<https://mdis.kostat.go.kr>), 2020 사회조사(보건·교육·안전·가족). 검색일: 2022. 5. 20. 원 자료를 저자 분석.

그러나 비혼 동거가 혼인 제도와 대등한 혹은 혼인 제도를 대체할 만한 파트너 결합 양식으로까지 부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 가족 구성 행위는 여전히 제도화된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2018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 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 도시와 농촌 모두 기혼 청년여성의 4% 정도만이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한국에서 비혼 동거가 자유로운 결합 형태이기보다 법률혼 진입 전의 준비 단계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지배적임을 보여준다.

결혼을 선택으로 간주하고 비혼 동거를 정규적 파트너 결합 양식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태도는 탈전통적이고 탈제도적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실제 가족 형성 행위는 제도화되어 있는데, 이는 비혼 동거 등 비제도적 결합 관계에 대한 법·제도적 인정 체계가 부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이에 따라 청년들, 특히 청년여성들의 가족 구성은 변화된 가치관과 제도적 지체 간의 간극으로 더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특히 성별 간,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가 농촌이 도시보다 크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은 농촌 청년여성에게 더 클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결혼에 대한 다양한 선택을 존중하는 인정 체계와 제도를 갖추는 것이 청년여성의 농촌사회 통합에 필요한 중요한 조치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3. 출산 및 양육 인식과 성역할 태도

청년들의 결혼 태도는 탈전통적, 탈제도적이라 할 만하지만, 출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전통적 태도가 강한 편이다. 청년여성들은 절반 정도가 출산을 선택으로 간주하지만, 청년남성, 노년층은 출산을 필수로 인식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고, 비혼 출산에 동의하는 비율은 모든 집단에서 낮기 때문이다<표 3-6>.

농촌 청년남성은 비혼 출산에 동의하는 비율이 43.5%로 높은 편이나, 그 외 청년들은 비혼 출산에 동의하는 비율이 대략 1/3 수준으로 낮고 세대 간 차이도 크지 않다. 이는 혼외 출산 금지, 생물학적 부모 우선, 부모로부터의 양육을 아동의 정상적 발달 기준으로 간주하는 '정상 가족' 규범의 영향이 강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출산 영역에서 작동하는 '정상 가족' 규범은 자녀 양육에 대한 여성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므로 청년여성들의 출산 기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도시와 농촌 모두 청년남성들은 60% 이상이, 노년층은 80% 이상이 출산을 필수로 여기지만, 출산의 당사자인 청년여성들은 절반 정도가 출산을 선택으로 생각하여 출산에 대한 성별 간, 세대 간 인식의 차이를 보여준다. 또한 청년여성 내에서는 농촌 여성이 도시 여성보다 출산을 필수로 여기는 비율이 10%p 이상 높아 도농 간 차이도 존재한다.

〈표 3-6〉 출산에 대한 태도

단위: %

구분	여성			남성			청년층 내 성별 차이 (A-C)	
	청년(A)	60대 이상(B)	세대 간 차이 (A-B)	청년(C)	60대 이상(D)	세대 간 차이 (C-D)		
농촌	비혼 출산	36.4	22.7	13.7	43.5	25.8	17.7	-7.1
	결혼 후 출산 필수	53.4	91.4	-38.0	65.2	91.8	-26.6	-11.8
도시	비혼 출산	37.7	21.7	16.0	37.0	23.2	13.8	0.7
	결혼 후 출산 필수	42.4	85.3	-42.9	60.7	88.2	-27.5	-18.3

주 1) '전적으로 동의한다'와 '약간 동의한다' 응답비율을 합한 것임.

2) 농촌 청년 표본 수는 남성 910명, 여성 771명, 도시 청년 표본 수는 남성 3,872명, 여성 7,881명임.

3) 거주지역이 동부와 읍면부로부터 구분되어 있음.

자료: 통계청(<https://mdis.kostat.go.kr>). 2020 사회조사(보건·교육·안전·가족). 검색일: 2022. 5. 20. 원 자료를 저자 분석.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는 지역 간 차이는 적으나 성별 간, 세대 간 차이가 크다. 가사를 아내 책임이라 인식하는 경우는 도시 청년여성이 13.7%로 가장 낮고 농촌 청년여성도 16.8%로 낮지만, 청년남성들은 농촌 23.6%, 도시 21.1%로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노년층은 절반 정도가 가사를 여성 책임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7).

〈표 3-7〉 가사분담 태도

단위: %

구분	여성			남성			청년층 내 성별 차이 (A-C)
	청년(A)	60대 이상 (B)	세대 간 차이 (A-B)	청년(C)	60대 이상 (D)	세대 간 차이 (C-D)	
농촌	16.8	48.9	-32.1	23.6	56.4	-32.8	-6.8
도시	13.7	46.4	-32.7	21.1	56.7	-35.6	-7.4

주 1)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와 '아내가 주로 하고 남편도 분담해야 한다' 응답비율을 합한 것임.

2) 농촌 청년 표본 수는 남성 910명, 여성 771명, 도시 청년 표본 수는 남성 3,872명, 여성 7,881명임.

3) 거주지역이 동부와 읍면부로부터 구분되어 있음.

자료: 통계청(<https://mdis.kostat.go.kr>). 2020 사회조사(보건·교육·안전·가족). 검색일: 2022. 5. 20. 원 자료를 저자 분석.

그러나 가사를 남녀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태도와 달리 실제 가사 수행은 여성 책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도시와 농촌 모두 기혼 청년여성들의 65% 이상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이 어렵다고 호소하였다(표 3-8).

성별에 따른 일과 가족 책임의 불균형이 소위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사회’의 장애물이라는 인식은 비혼여성들에게서 매우 강하다. 농촌과 도시 모두 비혼청년여성들은 남성이나 기혼여성에 비해 ‘양성평등 구현’을 자녀 양육의 사회적 조건으로 제시한 비율이 월등히 높다. 또한 농촌과 도시 모두 기혼 여성들은 ‘양육 환경 조성’, ‘양육비용 및 사교육비 부담 경감’ 등 양육의 직접적 부담 해소를 요구하는 비율이 높지만, 비혼 청년들은 ‘주택시장 및 고용 안정’, ‘학벌주의, 경쟁 타파’ 등 결혼과 가족생활의 물질적 기반 그리고 가족 과부하를 초래하는 자녀 집중 양육의 근본 구조인 경쟁주의 구조를 더 문제시하는 차이를 보였다.

〈표 3-8〉 일가정 양립 어려움과 자녀 양육에 바람직한 사회 조건 인식

단위: %

구분	기혼 여성		미혼 여성		미혼 남성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일가정 양립 어려움 있다	67.5	65.5					
자녀 양육에 바람직한 사회 조건	양성평등 구현	3.3	3.7	15.2	16.7	8.8	7.5
	교육 개혁	12.1	10.2	4.8	4.8	7.6	10.3
	학벌주의, 경쟁 타파	6.6	6.9	13.4	13.7	14.4	17.9
	주택시장 및 고용 안정	11.5	13.0	19.5	19.8	32.0	27.6
	다양한 가족 편견 해소	0.9	0.7	0.9	0.7	0.8	0.6
	질 좋고 다양한 양육 환경 조성	39.0	37.9	22.9	20.2	15.2	15.1
	양육비용, 사교육비 경감	21.1	19.5	17.7	15.4	10.4	12.7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2.6	4.3	3.0	4.5	6.4	4.8
복지 수준 향상	3.0	3.7	2.6	4.3	4.4	3.6	

주 1) 일가정 양립 어려움은 ‘매우 어렵다’와 ‘어렵다’ 응답값을 합한 것임.

2) 자녀 양육에 바람직한 사회 조건은 1순위 응답값만을 제시함.

3) 원자료의 지역 구분이 동부와 읍면부로만 구분됨.

4) 농촌 청년 표본 수는 기혼 여성 1,250명, 미혼 남성 251명, 미혼 여성 231명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https://data.kihasa.re.kr/kihasa/kor/databank>). 2018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검색일: 2022. 5. 27. 원자료를 저자 분석.

현재 자녀를 양육 중인 기혼 청년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불편사항은 ‘돌봄시설 부족’이 가장 높는데, 그 응답률은 면 거주 청년들이 두드러지게 높다. ‘자녀 병원 부족’은 농촌 지역 응답률이 도시의 2배 이상 높다. 그 외에 사교육 여건은 읍면 여성들이, 학부모 교류 기회 부족은 면 여성들이, 청소년 문화공간 부족은 읍 여성들이, 소규모 학교의 공교육 질 저하는 읍 거주 남성들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농촌의 양육 불편은 돌봄시설, 청소년 공간, 병원 등 인프라 부족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반면, 동 지역 여성들은 24.5%가 양육 불편사항이 거의 없다고 응답하여 농촌과 차이를 보였다<표 3-9>.

〈표 3-9〉유자녀 기혼 청년들의 양육 불편사항

단위: %

구분	면		읍		동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출산·육아·자녀 돌봄시설 부족	43.1	40.0	29.1	35.6	32.7	34.7
소규모 학교로 인한 공교육의 질 저하	8.6	8.6	6.3	16.9	12.2	10.2
자녀의 긴 통학시간	6.9	5.7	5.1	6.8	2.0	8.2
사교육 여건 부족	10.3	8.6	19.0	10.2	8.2	18.4
학부모 간의 교류 기회 부족	10.3	5.7	3.8	8.5	8.2	12.2
청소년 문화 공간 및 기회 부족	1.7	5.7	12.7	6.8	6.1	10.2
자녀 병원 부족	10.3	14.3	13.9	10.2	6.1	4.1
거의 없음	8.6	11.4	10.1	5.1	24.5	2.0

주: 1순위 응답만 제시함.

자료: 저자 작성.

4. 성과 재생산 건강권

청년기가 결혼, 출산, 임신 등 재생산 관련 생애사건을 집약적으로 이행하는 시기고, 특히 재생산 행위가 여성의 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성이 성과 재생산 실천을 자율적으로 선택, 결정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농촌뿐만 아니라 청년 전체의 성과 재생산 건강권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매우 불충분하지만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이하 ‘전국출산력조사’)'의 기혼 여성의 임신, 피임 경험을 통해 간접적으로 실태를 추측하고자 한다.

20~30대 기혼 여성의 92% 이상이 임신을 경험하였고, 이 중 농촌 기혼 여성은 7.8%, 도시 기혼 여성은 5.6%가 인공임신중절을 하였다. 임신 경험자 및 평균 임신횟수, 인공임신중절 경험자 비율은 농촌 지역이 더 많다<표 3-10>.

<표 3-10> 기혼 청년여성의 임신, 인공임신중절 경험 및 평균 횟수

단위: 명, %, 회

구분	임신 경험 있음			인공임신중절 경험 있음		
	사례 수	비율	평균 임신횟수	사례 수	비율	평균 인공임신중절 횟수
농촌	1,189	95.1	2.21	93	7.8	1.1
도시	3,837	92.1	1.97	215	5.6	1.3

주: 원자료의 지역 구분이 동부와 읍면부로만 구분됨. 표본 수는 농촌 기혼 청년여성 1,250명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https://data.kihasa.re.kr/kihasa/kor/databank>). 2018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검색일: 2022. 5. 27. 원자료를 저자 분석.

전국출산력조사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피임을 하지 않은 경우는 농촌 기혼 여성 10.6%, 도시 기혼 여성 12.5%로 적지 않은 편인데, 대부분 자녀 출산을 위해서 피임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피임방법을 몰라서 피임을 한 적 없다는 응답은 없었으나, 정작 피임 방법 질문에서는 피임법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월경주기법, 질외사정’을 주된 피임법으로 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서 기혼 여성들조차 피임 지식이 불충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임 성공률이 높고 의사의 처방이나 시

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콘돔과 사전 경구 피임약을 사용하는 비율은 절반 수준으로 낮다<표 3-11>.

과거 자료이긴 하나, 2011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전국 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에서 피임실패 이유로 ‘피임하지 않아서’가 62%로 높았고, 이 중 ‘피임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응답이 3.1%였다(임복희, 박지경, 2018, p.1622). 여기에 더해, 남성에게는 성적 적극성을, 여성에게는 순결과 정조를 강제하는 성적 이중규범의 작동이 여성의 적극적 피임 실천이나 요구, 피임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성관계를 거부할 수 있는 ‘피임 자기효능감’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을 고려하면(김계하, 조은아, 2019), 청년층의 피임 지식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태도를 포함한 포괄적 성교육이 시급하다.

<표 3-11> 기혼 청년여성의 피임 방법(다중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난관 수술	정관 수술	자궁 내 장치	사전 경구 피임약	사후 경구 피임약	콘돔	질 살정제	월경 주기법	질외 사정
농촌	943	5.9	15.6	9.4	4.3	0.8	39.4	0.1	38.9	34.5
도시	3,064	2.5	14.8	5.7	3.9	1.0	49.3	0.3	42.3	38.8

주 1) 비율은 사례수를 기준으로 함.

2) 원자료의 지역 구분이 동부와 읍면부로만 구분됨. 표본 수는 농촌 기혼 청년여성 1,250명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https://data.kihasa.re.kr/kihasa/kor/databank>). 2018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검색일: 2022. 5. 27. 원자료를 저자 분석.

한편, 농촌 여성과 관련한 건강 이슈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성 질환 중심으로 논의되면서, 농촌 청년여성들이 겪는 여성의학과 관련 질환, 예컨대, 월경 장애, 장시간의 들녘 노동으로 화장실 이용이 어려워 생기는 질염, 생식기 주변 피부염, 방광염 등의 건강 문제는 비가시화되어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먼 거주 비혼 여성을 제외하고 절반 이상의 여성들이 여성질환 관련 증상을 경험하였고, 혼인상태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다. 즉, 여성질환은 임신과 출산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게 일상적이고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것이다<표 3-12>.

도시와 농촌 모두 기혼 여성의 대부분은 여성질환 치료를 위해 병의원을 방문 하였으나 비혼 여성은 그 비율이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병원 치료를 하지 않은 이유로 ‘증상이 가볍거나 참을 수 있어서’가 주된 이유로 나타나긴 했으나, 농촌은 ‘접근 가능한 거리에 병의원이 없어서’라는 응답률이 높아 농촌의 의료 인프라 부족이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읍면에 거주하는 비혼 여성들에게는 진료비 부담도 병원 치료의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혼 여성들은 주변 시선을 불편해하는 응답률이 낮은 데 비해 농촌의 기혼 여성이 오히려 주변 시선 때문에 병의원 방문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여성들은 여성질환을 부끄러워하는 등 소극적 인식을 갖고 있지는 않으나 농촌의 경우 의료 인프라 부족과 비혼인 경우 진료비 부담 때문에 병원 치료를 잘 받지 못하고 있었다.

〈표 3-12〉 청년여성들의 여성질환 증상 및 병의원 치료 경험

단위: %

구분	비혼			기혼			
	면	읍	동	면	읍	동	
여성질환 관련 증상 경험	39.8	58.3	53.3	51.2	50.4	50.0	
여성질환 치료를 위한 병의원 방문	47.9	45.5	49.6	79.1	86.7	77.3	
병원 치료 받지 않은 이유	진료비 부담	8.0	13.6	4.9	-	-	11.1
	접근 가능한 거리에 관련 병의원 없음	12.0	15.2	4.9	20.0	12.5	11.1
	증상이 가벼워서	40.0	28.8	55.7	50.0	62.5	55.6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20.0	27.3	19.7	-	12.5	22.2
	바빠서	20.0	4.5	3.3	10.0	-	-
	주변 시선	-	10.6	8.2	20.0	12.5	-

자료: 저자 작성.

제4장

주거·복지·삶의 만족도



4

주거·복지·삶의 만족도

1. 주거와 교통

1.1. 주거 마련

청년들의 절반 가까이는 주택 탐색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비율은 농촌보다 도시가 더 높고, 농촌 내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저렴한 주택 부족은 모든 청년들의 가장 주된 어려움이다. 낙후된 건축물과 주택 형태의 다양성 부족도 응답률이 높는데, 농촌 내에서는 읍 지역 여성들이 낙후된 건축물을 꼽은 비율이 높고, 주택 형태의 다양성은 읍면 지역 남성들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읍면 여성들이 남성보다 중개업소 찾기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고, 면 지역 여성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치안, 주변 환경 우려’ 응답률이 높다. 농촌에서 여성들은 건축물의 낙후성, 중개업소 찾기, 치안 및 주변 환경 우려로 인한 탐색 어려움이 남성들보다 큰 편이다.

〈표 4-1〉 주택 탐색 어려움

단위: %

구분		농촌				도시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읍	면	읍	면		
어려움을 겪었다		54.9	57.4	43.3	41.7	62.3	44.5
어려움 내용 (다중응답)	저렴한 주택 부족	54.7	52.9	61.9	60.5	67.4	66.4
	다양한 주택 형태(오피스텔, 전세, 월세 등) 부족	38.4	29.2	41.0	46.2	28.5	50.9
	치안, 주변 환경 우려	20.4	31.3	21.2	19.5	23.1	18.6
	건축물, 내부시설이 좋지 않음 (환기, 난방, 낡음)	42.2	34.8	28.2	39.5	47.6	34.2
	원하는 집을 찾아볼 사이트나 정보 부족	22.2	33.7	30.2	22.5	13.4	17.8
	믿고 거래할 중개업소 찾기 어려움	20.3	18.1	15.7	10.8	15.7	12.3

자료: 저자 작성.

정부나 지자체가 조성한 귀농인의 집 혹은 청년 세어하우스 등의 공공/사회주택들은 일정 금액의 월세를 지불해야 하므로 무료 임차는 아니나 청년들의 농촌 진입 및 정착에서 가장 큰 장벽요인인 주거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안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사회주택은 공급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주민이나 조직이 개별적으로 무료 임차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료 임차는 도시에서는 없는 주택 거주형태이다. 그런데 비혼 청년여성은 기혼 여성이나 청년남성들에 비해 무료 임차 비율이 낮다. 이는 비혼 청년여성이 남성들에 비해 주거지 마련에 어려움을 더 겪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공공주택의 적극적 확대는 특히 비혼의 농촌 청년여성에게 시급한 사안이다(표 4-2).

〈표 4-2〉 주거 독립 청년들의 주택 점유형태

단위: %

구분		여성			남성		
		소계	비혼	기혼	소계	비혼	기혼
농촌	자가	36.9	12.5	49.4	30.2	19.1	46.7
	전세	22.7	23.9	22.1	23.5	18.0	31.7
	보증금 있는 월세	23.8	42.0	14.5	29.2	42.1	10.0
	보증금 없는 월세	3.1	4.5	2.3	3.4	5.1	0.8
	무료 임차	1.9	1.1	2.3	3.7	5.1	1.7
	무상(관사, 사택, 친척집)	11.5	15.9	9.3	9.4	9.6	9.2
도시	자가	35.5	16.3	56.0	40.4	34.1	50.0
	전세	21.9	22.5	21.3	26.5	22.0	33.3
	보증금 있는 월세	38.1	52.5	22.7	24.3	32.9	11.1
	보증금 없는 월세	1.3	2.5	-	3.7	3.7	3.7
	무료 임차	-	-	-	-	-	-
	무상(관사, 사택, 친척집)	1.9	3.8	-	5.1	7.3	1.9

자료: 저자 작성.

농촌 청년들의 주택 보증금은 남녀 모두 4천만 원 수준으로 도시 청년들의 절반 수준이며, 월 임차료도 도시보다 낮다. 그에 따라 농촌 청년들은 주거비 부담을 느끼지 않는 반면, 도시 청년들은 남녀 모두 주거비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주목할 점은 도시의 청년여성들은 보증금과 월세 모두 가장 높은 반면, 농촌의 청년여성들은 둘 다 가장 낮다는 점이다. 주거 비용은 주거의 질과 관련되는데, 도시 청년여성들은 높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쾌적하고 안전한 주택을 선택하는 반면, 농촌의 청년여성들은 주거의 질을 포기하고 저렴한 비용을 선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농촌의 임대주택이 도시보다 질은 좋고 비용은 저렴해서일 수도 있으나 농촌 청년남성들의 월세 비용이 도시 청년남성과 유사한 것을 보면 농촌 청년 여성들이 좋은 집에서 살만한 비용 지불 능력이 다른 집단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농촌 청년여성의 주택 만족도가 가장 낮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삶의 만족도는 뒤에서 다시 다루어질 것이다.

〈표 4-3〉 주거 독립 청년들의 주거비와 주거비 부담, 주택 만족도

단위: 만 원, %

구분	농촌		도시	
	여성	남성	여성	남성
보증금	4,038	4,135	8,905	8,111
주거지의 월 임차료	18.9	26.9	38.4	24.5
주거비 부담도	2.90	2.82	3.69	3.36
주택 만족도	3.19	3.32	3.22	3.33

주 1) '주거비 부담도'는 '전혀 부담 안 된다 1점~매우 부담스럽다 5점'으로 측정함.

2) '주택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 1점~매우 만족 5점'으로 측정함.

자료: 저자 작성.

1.2. 주거환경과 안전

안전과 관련해서는 여성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만, 지역 유형에 따른 성범죄 및 가정폭력 범죄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이 절에서는 주택 및 거주지 주변 안전에 대한 청년여성들의 불안감을 고찰하여 안전 이슈가 청년여성의 삶에서 중요 이슈임을 가늠하고자 한다.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여성의 지역 정주를 저해하는 중요 요소 중 하나다. 청년여성농업인 대상 연구에서 개방형 구조인 농촌 주택, 사생활 보호 개념이 미흡한 농촌사회로 인해 여성들이 자기 집에서도 마음 편하게 지내기 어렵고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지적되었다(이순미 외, 2020; 태희원 외, 2021).

주택 방범 상태는 면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불만족 비율이 높고 성별 차이는 적다. 여성들이 주택 방범 상태에 불만족하는 비율이 높지 않은 것은 현재 거주지를 선택할 때 이미 안전 요소를 고려하여 집을 선택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집은 그런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최저 주거기준에는 가구원수별 면적과 방의 개수만이 포함되어 있어 채광 통풍 등 건강 관련 요인이 고려되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전에 대한 기준 또한 미비하

다고 지적된다. 외부에서 집안이 들여다보이는 위치라거나 외부 침입이 가능한 창문 등에 대해서는 방법장 설치 등이 필요하므로 안전한 거처는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된다. 즉, 매물 자체가 부족한 면 지역 청년들은 읍이나 도시 지역보다 안전 비용 지불 부담이 더 크다. 자력으로 안전하고 적절한 거처를 마련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정부가 정책 지원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신경아 외, 2021, p.139)

거주지 주변 방법 상태는 농촌과 도시 모두 여성들이 남성보다 불만족 비율이 더 높다. 면 지역의 경우 주택 자체의 방법 상태는 불만족스럽지만 주변 환경의 안전은 읍이나 도시 지역에 비해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표 4-4).

〈표 4-4〉 주택 및 거주환경 불만족 사항: 방법

단위: %

구분	농촌				도시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읍	면	읍	면		
주택의 방법 상태	5.9	25.3	8.6	22.7	12.7	17.8
치안 및 범죄 등 방법 상태	11.9	8.1	6.3	6.3	17.1	9.0

자료: 저자 작성.

거주지 주변 안전 실태에 대한 또 다른 지표로 야간보행 불안도를 꼽을 수 있다. 야간 보행 시 불안감을 느끼는 정도는 도시와 농촌 모두 여성이 남성의 4배 가까이 높는데 청년여성뿐만 아니라 노년층 여성들의 불안도도 높게 나타났다(표 4-5).

불안 정도의 성별 차이도 중요하지만 특히 주목할 점은 불안을 느끼는 이유의 성별 차이다. 농촌 청년여성들은 인적이 드물어서 불안을 느끼지만 청년남성들은 보행안전 시설 부족 때문에 불안을 느끼는 비율이 높다. 여성은 성범죄 우려 등 사회적 안전 문제에 민감한 반면, 남성은 사고·재해 등 물리적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반면, 도시는 여성과 남성 모두 사건·사고 뉴스를 자주 접해서 불안을 느끼는 비율이 가장 높다. 즉, 농촌청년들의 불안은 실제적인 데 비해 도시 청년들의 불안은 간접 체험에서 구성된 측면이 강하다.

〈표 4-5〉 성별, 연령별 야간보행 불안도 및 불안 이유

단위: %

구분	여성			남성			청년층 내 성별 차이 (A-C)	
	청년(A)	60대 이상 (B)	세대 간 차이 (A-B)	청년(C)	60대 이상 (D)	세대 간 차이 (C-D)		
야간보행 불안	56.2	33.9	22.3	15.4	18.5	-3.1	40.8	
농촌 불안 이유	보행안전시설 부족	28.0	20.6	7.4	38.0	22.7	15.3	-10.0
	치안 시설 부족	5.1	4.5	0.6	13.4	8.3	5.1	-8.3
	인적 드물	36.0	45.8	-9.8	24.9	37.9	-13.0	11.1
	우범지역 존재	1.4	1.3	0.1	2.2	1.4	0.8	-0.8
	사건 사고 뉴스 자주 접하여	28.3	26.8	1.5	20.4	28.0	-7.6	7.9
야간보행 불안	57.9	50.2	7.7	13.5	20.8	-7.3	44.4	
도시 불안 이유	보행안전시설 부족	17.9	16.3	1.6	27.1	20.3	6.8	-9.2
	치안 시설 부족	5.8	6.9	-1.1	8.4	9.7	-1.3	-2.6
	인적 드물	24.9	24.3	0.6	21.0	20.4	0.6	3.9
	우범지역 존재	2.5	4.0	-1.5	3.2	5.2	-2.0	-0.7
	사건 사고 뉴스 자주 접하여	48.0	48.1	-0.1	40.1	43.7	-3.6	7.9

주 1) 야간보행 불안은 '매우 불안하다고 느낀다'와 '약간 불안하다고 느낀다' 응답비율을 합한 것임.

2) 가중치를 적용함(가중치 적용 전 농촌 청년 표본 수는 남성 910명, 여성 771명).

자료: 통계청(<https://mdis.kostat.go.kr>). 2020 사회조사(보건·교육·안전·가족). 검색일: 2022. 5. 20.
원자료를 분석.

1.3. 교통

도시 청년여성은 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지만, 그 외 청년들은 승용차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 특히 농촌 청년들의 승용차 이용률은 매우 높은 편이나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승용차를 이용하는 비율이 많이 낮다. 승용차 다음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이 버스인데, 농촌 청년들의 버스 이용률은 도시 청년의 절반 수준으로 낮다. 농촌 청년여성들은 승용차 이용률이 남성보다 낮은 대신 버스 이용률이 높아 농촌의 대중교통 문제에 여성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를 보여준다(표 4-6).

〈표 4-6〉 이용하는 교통수단

단위: %

구분	농촌				도시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읍	면	읍	면		
도보	9.5	8.0	8.7	9.8	10.2	9.1
자전거	0.4	0.3	1.3	0.9	0.6	1.5
승용차	32.3	34.9	52.0	50.0	19.4	36.8
버스	12.2	9.9	7.7	5.4	20.0	13.5
택시	0.4	0.5	0.3	0.3	1.0	0.4

자료: 통계청(<https://mdis.kostat.go.kr>). 2020 인구주택총조사(2%_인구사항). 검색일: 2022. 4. 12. 원 자료를 저자 분석.

2. 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스, 우울감, 우울증상 유병으로 정신건강 상태를 살펴본 결과, 도시와 농촌 모두 청년여성의 정신건강이 노년층이나 청년남성에 비해 훨씬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를 인지하는 비율은 농촌 청년여성 31.8%, 도시 청년여성 34.6%로 남성보다 높고 노년층보다는 2배 가까이 높다. 지역에 상관없이 청년여성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상황은 ‘젊은 여성’으로서의 고충이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우울증을 경험한 비율은 도시와 농촌 모두 여성이 남성의 2배 가까이 높아 성별 차이가 크다. 우울증 평가도구⁴⁾로 살펴본 우울 증상 유병률도 청년 여성이 남성의 2배 가까이 높고 세대 간 차이는 거의 없다〈표 4-7〉.

4) 우울증 평가도구(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는 국가건강검진에서 활용하고 있는 우울증 평가도구로, 일에 대한 흥미, 우울감, 수면장애, 피로감, 식욕, 불행감, 집중 저하, 불안행동, 자기비하의 9개 항목에 대해 ‘전혀 아님 0점, 여러 날 동안 1점, 일주일 이상 2점, 거의 매일 3점’으로 측정 후 점수를 합하여 점수가 높으면 우울증 위험이 높다고 평가함.

〈표 4-7〉 성별, 연령별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우울 증상 유병률

단위: %

구분		여성			남성			청년층 내 성별 차이 (A-C)
		청년 (A)	60대 이상(B)	세대 간 차 이(A-B)	청년 (C)	60대 이상(D)	세대 간 차이 (C-D)	
농촌	스트레스 인지율	31.8	16.7	15.1	27.1	12.6	14.5	4.7
	우울증 경험율	7.5	7.0	0.5	3.9	4.0	-0.1	3.6
	우울 증상 유병률	4.2	4.2	0.0	2.3	2.1	0.2	1.9
도시	스트레스 인지율	34.6	18.0	16.6	28.1	15.3	12.8	6.5
	우울증 경험율	7.9	7.5	0.4	4.6	4.4	0.2	3.3
	우울 증상 유병률	4.4	4.4	0.0	2.5	2.4	0.1	1.9

주 1) 스트레스 인지율은 '대단히 많이 느낀다'와 '많이 느끼는 편이다' 응답비율을 합한 것임.

2) 우울 증상 유병률은 우울증 평가도구(PHQ-9)의 총점이 10점 이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우울상태인 사람들의 비율임.

3) 가중치를 적용함(가중치 적용 전 농촌 청년 표본 수는 남성 6,940명, 여성 7,204명).

자료: 질병관리청(<https://mdis.kostat.go.kr>). 2020 지역사회건강조사. 검색일: 2022. 5. 20. 원자료를 저자 분석.

도시 청년여성의 자살 충동 비율이 다른 집단의 2배 이상 높고, 농촌 청년여성의 자살충동 비율도 청년남성들에 비해 높다. 일반적으로 자살 충동과 시도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다고 보고된다(표 4-8).⁵⁾

자살 충동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높은 것은 청년들의 공통점이나 그 외 이유에서는 지역과 성별 차이가 있다. 농촌 청년여성은 '외로움·고독'이 자살 충동의 주된 이유이고, 농촌 청년남성은 '질환·장애' 이유의 비율이 높다. 청년 전체로는 남성들의 자살 충동은 경제, 취업 문제가 주된 이유인 반면, 여성들의 자살 충동은 관계, 심리 차원의 문제가 포함되어 더 다양하다.

PHQ-9 점수	우울 중증도	조치
0~4점	우울하지 않은 상태	없음
5~9점	약한 우울 상태	후속 조치로 PHQ-9를 반복 조사하며 주의 깊게 관찰
10~14점	중간 정도의 우울 상태	치료 계획을 세움. 상담 등 후속 조치 필요
15~19점	심한 우울 상태	심리 치료 또는 약물 요법 등의 능동적 치료 필요
20~27점	극심한 우울 상태	정신 건강 전문의에게 신속히 의뢰, 약물 요법을 통한 치료 즉각 필요

5)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국가응급진료정보망'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20~30대 자살자 수는 남성이 202명으로 여성보다 33명 더 많지만, 자살 시도는 여성이 9,026명으로 남성보다 3,631명 더 많음(신경아 외, 2021, pp.236-237).

〈표 4-8〉 자살 충동 및 이유

단위: %

구분	농촌			도시			
	여성	남성	성별 차이	여성	남성	성별 차이	
자살 충동	4.9	2.9	2.0	8.0	4.2	3.8	
이유	경제적 어려움	27.6	43.4	-15.8	26.6	36.1	-9.5
	질환, 장애 때문	6.0	14.5	-8.5	12.5	10.0	2.5
	취업 문제 때문(실직, 미취업 등)	11.8	15.5	-3.7	14.3	23.0	-8.7
	외로움, 고독	26.3	5.8	20.5	15.7	14.2	1.5
	가정불화	17.4	10.3	7.1	16.7	5.7	11.0
	성적, 진로, 연애, 친구관계	10.7	7.0	0.7	11.2	7.7	3.5

주: 가중치를 적용함(가중치 적용 전 농촌 청년 표본 수는 남성 910명, 여성 771명).

자료: 통계청(<https://mdis.kostat.go.kr>). 2020 사회조사(보건·교육·안전·가족). 검색일: 2022. 5. 20. 원 자료를 분석.

3. 삶에 대한 주관적 평가

청년들은 공통적으로 자기 일의 가치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아닌 유보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반면, 삶의 결정에 대한 자율성 인식은 70점 전후로 높은 편이다. 두 지표 모두 지역과 성별 차이는 없다〈표 4-9〉.

〈표 4-9〉 자기 일의 가치 평가와 자율성 인식

단위: %, 점

구분	농촌				도시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음	면	음	면		
자기 일의 가치	55.5	55.5	54.7	56.6	55.0	54.7
삶의 결정 자율성	71.5	69.6	68.9	71.7	73.1	67.7

주: 자기 일의 가치는 10점, 자율성은 4점 척도로 조사된 것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함.

자료: 저자 작성.

청년들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는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고 지역, 성별 차이는 크지 않다. 영역별로는 가족생활 및 가족관계 만족도가 70점 이상으로 가장 높고 주민관계, 주택, 주거환경 만족도도 60점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영역은 도시와 농촌, 남성과 여성 모두 소득 부분이었다(표 4-10).

〈표 4-10〉 삶의 만족도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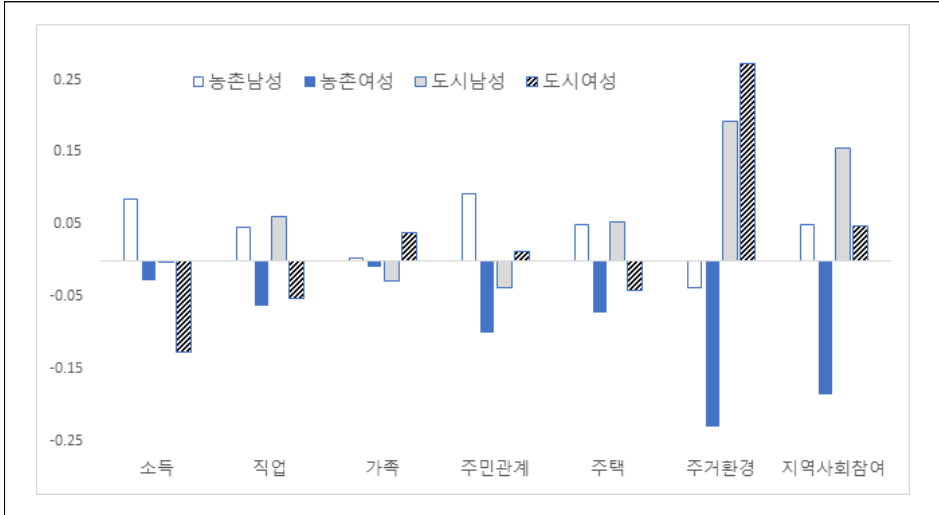
구분	농촌				도시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읍	면	읍	면		
전반적 삶의 만족도	55.1	54.1	53.9	56.3	55.5	53.8
소득 만족도	53.5	53.4	54.2	58.5	51.2	54.1
직업 만족도	57.8	57.9	58.4	63.0	58.1	60.7
가족 만족도	71.7	72.3	72.5	71.8	72.9	71.5
주민관계 만족도	63.5	62.6	66.3	67.1	65.2	64.3
주택 만족도	63.5	64.2	66.6	65.9	64.4	66.4
주거환경 만족도	60.0	56.1	64.0	60.6	69.2	67.5
지역사회 참여 만족도	56.0	55.3	59.6	60.5	60.0	61.9

주: 삶의 만족도는 10점, 영역별 만족도는 5점 척도로 조사된 것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함.

자료: 저자 작성.

청년들의 영역별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집단 간의 상대적 차이는 큰 편이다. 〈그림 4-1〉은 영역별 만족도를 표준화 점수로 변환하여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 것이다. 농촌의 여성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영역이 많고 특히 주거환경, 지역사회 참여, 주민관계의 만족도가 낮다. 농촌 남성은 주거환경을 제외한 영역들에서 대체로 만족해하며, 특히 소득과 주민관계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4-1〉 삶의 영역별 만족도의 상대적 차이



주: 만족도 값을 표준화점수로 변환함.
자료: 저자 작성.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역과 성별로 차이가 있다. 여성의 삶의 만족도는 농촌과 도시 모두 자신의 인적 특성이나 경제적 기반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주관적 삶의 평가 요소들에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기 일이 가치 있다는 인식, 자율성 인식, 소득 만족도, 가족 만족도, 주택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표 4-11).

남성들의 삶의 만족도는 도시와 농촌 모두 자신의 사회경제적 배경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청년남성의 만족도는 나이가 어릴수록, 소득이 충분하다고 느낄수록, 일의 가치 평가인식, 자율성, 소득 만족도, 가족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도시 청년남성들의 만족도는 농촌 남성의 영향요인에서 소득 충분도 효과는 없고 혼인상태와 주택 만족도의 영향이 추가되었다.

〈표 4-11〉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

구분	농촌		도시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연령	0.000	-0.040***	-0.012	-0.004*
대학 졸업	0.195	0.144	0.400	-0.244
기혼	0.207	0.260	0.262	0.567**
취업	-0.184	0.017	-0.011	-0.035
총소득	0.000	0.000	0.000	0.000
소득충분도	0.052	0.174**	0.142	0.139
일의 가치 평가인식	0.048***	0.049***	0.044***	0.037***
자율성 인식	0.014***	0.007*	0.009*	0.015**
소득 만족도	0.008*	0.017***	0.008	0.025***
직업 만족도	0.003	-0.006	0.004	-0.004
가족 만족도	0.018***	0.017***	0.023***	0.021***
주민관계 만족도	0.004	0.006	-0.008	0.011
주택 만족도	0.009*	-0.002	0.016**	0.013*
주거환경 만족도	0.001	0.006	-0.003	-0.008
지역사회 참여 만족도	0.002	0.003	-0.003	-0.003
N	549	660	325	318
모형적합도(F)	50.674***	62.576***	38.190***	33.088***
설명력(R ²)	0.615	0.614	0.662	0.641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저자 작성.

제5장

사회·정치 인식과 지역사회 참여



5

사회·정치 인식과 지역사회 참여

1. 사회·정치 인식과 의견 표명

농촌 청년은 60% 이상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한다'고 응답하여, 도시 청년들에 비해 일반신뢰 수준이 상당히 높다. 청년들의 대부분은 가족과 지인을 신뢰하지만, 이웃을 신뢰하는 비율은 50%대로 낮고 낯선 사람, 국내 거주 외국인을 신뢰하는 청년들은 10%를 약간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망이 가족, 지인의 가까운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다양한 관계나 집단에 대한 수용도가 낮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목할 점은 농촌의 청년들이 도시에 비해 지인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점이다. 이는 농촌 청년들이 가족을 포함하여 사적 연결에 결속된 정도가 도시 청년들보다 강하다는 것을 시사한다<표 5-1>.

청년들의 일반신뢰 및 가까운 집단에 대한 신뢰도는 높은 반면, 공정성 인식은 그렇지 못하다. 청년들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해 보통 이하라고 인식하며 여기에 지역별 차이는 없다. 성별 차이는 약하긴 하지만 여성들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남성보다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 사회적 신뢰와 공정성 인식

단위: %

구분	농촌		도시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일반 신뢰	61.1	60.7	45.9	45.0	
집단별 신뢰	가족	96.7	97.5	96.0	95.5
	이웃	55.6	59.7	56.3	52.6
	지인	82.8	80.6	77.7	75.2
	낯선 사람	13.9	14.9	14.0	12.9
	국내 거주 외국인	12.8	17.4	14.0	11.9
공정성 인식	2.52	2.49	2.50	2.44	

주 1) 신뢰도는 '매우 신뢰한다'와 '약간 신뢰한다' 응답비율을 합한 것임.

2) 공정성 인식은 14개 영역별로 4점 척도로 조사된 점수의 전체평균을 산출한 것임.

3)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음(농촌 청년 표본 수는 남성 201명, 여성 180명).

자료: 한국행정연구원(<https://mdis.kostat.go.kr>). 2020 사회통합실태조사. 검색일: 2022. 5. 27. 원자료를 저자 분석.

청년들의 정치 효능감도 그리 높지 않다. 특히 농촌 청년여성의 정치 효능감은 네 집단 중에서 가장 낮다. 도시 청년남성이 '가치관,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 이해할 수 있다'에 동의하는 비율이 52.8%인 것이 가장 높은 수준이고, 그 외는 50%를 넘지 않는다. 특히 농촌 청년들은 남녀 모두 '자신이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에 동의하는 비율이 30% 미만으로 낮고, 이 역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낮다〈표 5-2〉.

〈표 5-2〉 정치 효능감

단위: %

구분	농촌		도시	
	여성	남성	여성	남성
나는 정치 문제 이해참여 능력이 있다	32.0	38.8	43.3	49.7
나는 가치관,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 이해할 수 있다	38.7	44.1	49.4	52.8
나는 선거, 캠페인 참여로 정치발전에 영향 미칠 수 있다	27.8	29.2	39.6	39.4

주 1)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 응답비율을 합한 수치임.

2)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음(농촌 청년 표본 수는 남성 371명, 여성 343명).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https://www.nypi.re.kr/archive/mps>). 2020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검색일: 2022. 3. 22. 원자료를 저자 분석.

자신의 사회·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경험은 도시와 농촌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높다. 여성들은 도시와 농촌 모두 44.5%가 자신의 의견 표명 활동을 한 경험이 있으나 남성들은 그 비율이 40% 미만이고, 농촌 청년남성은 33.2%로 가장 낮다 <표 5-3>.

<표 5-3> 개인 의견 표명 활동 여부

단위: %

구분	농촌		도시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의견 표명한 적 있음	44.6	33.2	44.5	39.5
SNS, 홈페이지, 블로그 글, 댓글	23.5	23.3	29.2	25.3
뱃지, 팔찌, 리본, 스티커 등 착용	13.1	11.0	22.7	15.3
서명 참여	34.0	25.6	32.5	25.9
집회시위 참여	5.5	5.8	10.3	8.1
항의전화	8.2	8.9	7.3	7.1

주 1) 참여한 적 있는 사람들의 비율임.

2)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음(농촌 청년 표본 수는 남성 371명, 여성 343명).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https://www.nypi.re.kr/archive/mps>). 2020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검색일: 2022. 3. 22. 원자료를 저자 분석.

정치 효능감은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의견 표명 활동 비율이 더 높은 것은 여성들이 의견 표명 활동을 정치적 행위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의견을 표출하지만 그것을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공적 소통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상에 글이나 댓글 달기, 서명 참여의 소극적 방식이 주를 이루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2. 지역사회 참여와 교류

청년들은 단체 참여율도 낮다. 지난 1년간 단체에 참여한 비율은 도시 청년이 남녀 모두 37.2%로 농촌 청년보다 높고 농촌 내에서는 여성의 참여율이 27.2%로 남성보다 많이 낮다. 참여 단체 유형으로는 청년들 모두 ‘친목·사교 단체’, ‘취미·스포츠·여가활동 단체’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가까운 관계나 취미 중심으로 사회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5-4>.

〈표 5-4〉 지난 1년간 단체 참여 여부

단위: %

구분	농촌		도시	
	여성	남성	여성	남성
단체 참여하였음	27.2	33.2	37.2	37.2
친목사교 단체	17.8	20.9	24.5	24.0
종교 단체	5.6	5.4	7.2	5.7
취미·스포츠·여가활동 단체	11.9	20.2	17.8	23.1
시민사회 단체	2.2	1.3	2.6	2.0
학술 단체	2.4	0.9	3.1	3.0
이익 단체	0.4	1.5	0.8	1.3
정치 단체	-	0.2	0.5	0.5
지역사회 모임	1.0	1.3	0.9	1.2

주: 가중치를 적용함(가중치 적용 전 농촌 청년 표본 수는 남성 898명, 여성 801명).

자료: 통계청(<https://mdis.kostat.go.kr>). 2021 사회조사(복지·사회참여문화와 여가소득과 소비·노동).

검색일: 2022. 5. 20. 원자료를 저자 분석.

농촌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시민사회 단체, 학술 단체 참여율은 약간 더 높고, 정치단체, 이익단체 참여율은 낮아 농촌 청년의 단체 참여 형태가 성별로 차이가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 연구를 위한 농촌청년자문단에 참여한 여성들은 농촌에서 청년남성들은 지역 내 의사결정구조라 할 만한 단체, 모임에 주로 참여하고, 여성들은 학습모임, 자조모임 등의 커뮤니티 활동에 주로 참여한다고 하였다. 농

촌 청년여성들의 낮은 정치 효능감은 이러한 지역사회 참여의 성별화된 패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⁶⁾

청년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지역민들과의 교류 및 관계 정도는 도시와 농촌 모두 낮고 성별 차이도 거의 없다. 지역 내 봉사활동 참여는 10% 내외로 단체 참여율보다 훨씬 낮고 지역 내 다른 청년들이나 기성세대와도 거의 교류를 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거주 지역에서 자기계발할 기회가 적다고 평가하고 거주 지역 발전에 대한 관심·책임감도 잘 느끼지 않고 있었다. 반면, 지역주민과의 관계 인식은 긍정적인데, 이는 적극적 의미의 관계성이기보다 교류와 접촉의 부재로 갈등이 일어날 일이 없는 것을 ‘관계 양호’로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표 5-5>.

한편, 아플 때나 큰돈이 필요할 때, 낙심·우울할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다는 응답은 70% 이상으로, 통계청 사회조사(2021년)에서 사회적 지지망이 있는 60세 이상의 비율(도구적 지지 68.9%, 경제적 지지 35.4%, 정서적 지지 71.6%)보다 월등히 높아 도시와 농촌 모두 청년들의 사회적 지지망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아플 때 가사 도움 등 도구적 지지치가 있는 비율이 가장 높고, 그다음 정서적 지지, 경제적 지지 순이며, 지역 및 성별 차이는 크지 않으나 농촌 여성의 경제적 지지망 비율이 전체에서 가장 낮다.

6) 청년 연구자문단의 간담회 내용 전문은 부속보고서(마상진 외, 2022, 농촌청년 연구자문단 간담회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로 발간되었고, 간담회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본 보고서(마상진 외, 2022, 농촌과 청년: 청년세대를 통한 농촌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부록에 담겨 있다.

〈표 5-5〉 지역 내 교류관계 및 지역 관심도

단위: %

구분	농촌		도시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지역 내 봉사활동 참여	10.3	9.1	10.0	9.4	
지역 내 다른 청년들과 교류 정도	1.89	2.04	1.83	1.97	
지역 내 기성세대와 교류 정도	1.78	1.92	1.62	1.71	
지역주민과의 관계	3.16	3.22	3.14	3.12	
거주지역의 발전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	2.25	2.29	2.33	2.28	
거주지역에서 자기계발 기회 정도	2.68	2.72	2.27	2.42	
도움 받을 사람 있다	아플 때	90.5	88.3	90.7	91.3
	갑자기 큰돈을 빌릴 때	70.3	73.6	75.6	73.8
	낙심, 우울할 때	81.9	85.0	84.9	84.0

자료: 저자 작성.

청년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의 공통된 장애요인은 시간 부족이고, 시설·장소 부족은 농촌 청년의 특수한 장애요인이다. 자유롭게 사용할 커뮤니티 공간이나 문화 관련 인프라 부족으로 지역사회 활동 참여가 어려운 것인데, 이는 면 지역 청년들에게서 더 두드러진다. 그 외 농촌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원하는 단체(모임)가 부족한 것도 참여의 장애요인인 비율이 높다. 간담회에 참석한 농촌청년자문단들은 청년의 농촌생활 지속가능성에 청년 커뮤니티의 중요성이 크다고 강조하였다. 기존에 있는 농촌의 조직/단체들은 제도권 내 포섭되어 있거나 직능 단체들이 많아 단체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중고령 남성들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어 청년들의 참여가 구조적으로 제약이 있다. 이 때문에 농촌 청년들은 스스로 청년 커뮤니티를 조직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 청년 커뮤니티의 유무에 따라 농촌 정착의 가능성이 크게 좌우된다고 하였다. 농촌 청년여성들의 지역사회 관계성이 남성에 비해 정서적 관계, 사적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에 대한 기대나 관심이 약한 점을 감안할 때 청년 커뮤니티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특히 농촌 여성에게 더 크다(표 5-6).

〈표 5-6〉 지역사회 활동 참여 장애요인

단위: %, 점

구분	농촌				도시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읍	면	읍	면		
시간 부족	24.5	19.9	24.0	20.9	24.7	27.8
적합한 시설·장소 없음	15.2	23.3	20.9	24.5	9.9	4.2
경제적 여유 없어서	15.8	9.7	17.1	15.2	16.7	23.6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부담됨	10.6	8.7	9.2	5.7	15.4	11.8
나의 진로나 스펙에 도움이 안 됨	3.6	4.4	3.6	4.3	4.2	6.0
같이 참여할 사람이 없음	7.0	7.3	5.1	8.2	6.7	7.9
단체나 관련 활동에 대한 정보가 없음	3.9	2.9	3.6	2.5	8.7	4.5
주변에 원하는 단체(모임)가 없음	6.7	5.8	4.6	2.8	5.8	4.5
리더·전문가(강사) 부족	0.3	1.0	0.8	0.7	1.6	0.9
지역의 기성세대와 교류가 불편	1.8	1.5	0.3	3.2	2.2	1.5
교통 불편	7.0	8.3	6.9	8.2	2.2	3.3

주 1) 지역 청년, 지역 기성세대와의 교류 정도는 '전혀 하지 않는다 1점~많이 한다 4점'으로 측정함.

2) 지역주민들과의 관계는 '매우 나쁘다 1점~매우 좋다 5점'으로 측정함.

3) 자기개발 기회, 지역발전 관심·책임감은 '전혀 없다 1점~많이 있다 4점'으로 측정함.

자료: 저자 작성.

3. 정주 의향

농촌 청년들은 남성과 여성 모두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보통 미만으로 약한 편이고, 면 지역 여성의 지역 소속감이 가장 낮다. 다른 농촌 지역으로의 이주를 포함해서 농촌에 계속 거주할 의향이 있는 청년들은 40% 미만으로 높지 않은데, 읍 지역 여성의 농촌 거주 의향이 가장 높고 읍 지역 남성의 농촌 거주 의향이 가장 낮다 〈표 5-7〉.

〈표 5-7〉 농촌 청년의 지역 소속감과 계속 거주 의향

단위: %, 점

구분	농촌			
	여성		남성	
	읍	면	읍	면
지역 소속감	2.31	2.25	2.30	2.33
농촌 거주 의향	38.3	34.5	28.7	35.4

주 1) 지역 소속감은 '매우 아니다 1점~매우 그렇다 4점'으로 측정하여 2.5점이 보통 수준임.

2) 농촌 거주 의향은 '현재 지역 계속 거주'와 '다른 농촌으로의 이주 의향'을 포함함.

자료: 저자 작성.

현재 농촌에 살고 있는 청년들의 2/3 이상이 농촌을 떠날 계획이거나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은 청년들의 농촌 정주 지원이 더 강화될 필요성을 보여준다. 직업이나 가족적 요인과 같은 개인적 차원의 이유 때문에 현재 거주지역을 떠나고 싶다는 응답률도 높지만, 이보다는 주택, 생활 인프라와 같은 정주환경 부족 응답률이 높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면 지역 거주 여성들이 주택이나 생활 인프라 부족 때문에 농촌을 떠나고 싶다는 비율이 더 높다. 농촌 생활서비스 및 인프라 부족이 특별히 젠더 이슈인 것은 아니지만 서비스 부족으로 인한 생활 어려움은 주거, 교통, 소득 등에서 남성보다 자원이 취약하고 자녀나 노인 등을 돌보는 여성에게 더 크게 체감된다. 낮은 인구 수, 지리적 분산 등으로 서비스 시장 형성이 어려운 농촌의 생활서비스는 공공 주도 공급 원칙을 강하게 견지할 필요가 있다(표 5-8).

한편, 주민 및 세대 간 갈등 등의 심리적이고 관계적인 문제를 농촌 이탈의 이유로 제시한 청년들은 극히 드물다. 청년들이 생각하기에 주민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개선이 가능하지만 부족한 생활 인프라와 서비스는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농촌 정주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인프라 부족이라 인식하는 듯하다.

〈표 5-8〉 농촌 청년의 현재 거주지역을 떠나고 싶은 이유(다중응답)

단위: %

구분	농촌					
	여성			남성		
	소계	읍	면	소계	읍	면
전근, 실직 등 직업적 요인	54.2	55.1	53.2	62.9	65.3	60.8
결혼, 가족 합가 등 가족적 요인	30.3	27.0	33.9	27.7	25.5	29.8
계약 만료, 내집 마련 등 주택 요인	50.7	49.9	51.4	44.9	48.8	41.2
교통, 자녀교육 등 생활 인프라 요인	53.7	54.2	53.2	49.1	43.2	54.7
외로움, 관계 갈등 등 관계적 요인	2.2	2.5	1.8	4.5	3.5	5.4
건강 등 기타	6.2	9.3	2.7	6.9	8.5	5.4

자료: 저자 작성.

제6장

성인지적 농촌 청년정책의 방향



6

성인지적 농촌 청년정책의 방향

1. 요약: 지역과 성별의 이중 소외

농촌 청년여성의 취약성은 물질적·사회문화적으로 지체된 농촌이라는 지역적 맥락과 ‘여성’이라는 성별성이 교차하여 발생되며, 취약성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은 다음과 같다.

20대 농촌 여성의 취업률이 특히 저조한데, 이는 농촌 일자리 기회 부족에 더해 농촌 여성의 경력단절이 더 이른 시기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자녀돌봄 시설/서비스 확충과 함께 유연한 방식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중직업 활동에 적합한 일자리 기회를 다양하게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촌 청년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고용 불안정성이 높고 고용의 질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선호하는 일자리 기준에서 급여와 안정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고 직무 적성과 복지 수준을 더 중시하였다. 또한 농촌의 경우 계절적 시간노동 수요가 많아 불안정 고용형태라도 시간당 임금 수준은 높는데, 여성의 경우는 총 노동

시간 자체가 길지 않기 때문에 임금 총액이 남성보다 낮은 특징이 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은 농촌과 도시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월등히 높다. 특히 면 지역 청년여성들이 병가·휴직 등 노동권 침해와 성희롱·성폭력, 인격적 무시·감정 폭력의 인권 침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 청년여성 일자리 이슈가 고용안정성, 적정 급여의 고용 질 문제만큼이나 노동자의 법적 권리, 일·생활 양립 실현, 성희롱·성폭력 대응 등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과 다양한 일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농촌에서 만들어지는 일들은 고용 관계를 전제하는 것들도 있으나 농사 품앗이, 잔치·행사 일손, 장보기 대행 등 개인적 차원의 일회적 일거리, 주민 주도 정책사업의 프로젝트형 활동, 생활지원사, 방과후강사 등 재정지원 일자리 등 노동시장 외부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많다. 이러한 비시장적 일거리는 일자리 기회 자체가 부족한 농촌에서 청년여성들의 새로운 경제활동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거리 중에는 기존에 농촌 중고령 여성들이 무급의 봉사활동으로 하던 것들이 유급 일거리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아 임금 개념이기보다는 활동 수당 개념의 싹 일거리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청년여성들이 다중경제활동 수단으로 일거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임금이 보장되어야 한다.

농촌 청년여성의 결혼 감소율과 1인가구 증가율이 남성보다 더 급격하다. 이러한 결혼 행태의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를 동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의 가치관 변화가 훨씬 더 급진적이어서 결혼과 성역할 규범에 대한 성별 간, 세대 간 의식 격차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촌 지역의 세대 간 차이는 가치관의 단절이라 할 만큼 간극이 컸다. 비혼의 농촌여성들은 결혼의향이 남성들보다 훨씬 낮는데 결혼으로 인한 자율성 제약이 결혼 지연·기피의 주된 이유인 반면, 남성들은 경제적 준비 부족이 주된 이유여서 성역할 및 핵가족 규범은 여성뿐만 아니라 청년 전체의 가족형성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라 할 만하였다. 따라서 가족/가구 중심의 청년 및 농촌정책의 틀을 개인 기반 정책으로 전환하고, 특히 비혼 여성 1인가구의 생활안정, 안전 등을 농촌 청년정책에서 중요 이슈로 다룰 필

요가 있다. 또한 기성세대와 농촌 사회 그리고 정책이 전통적 규범을 청년들에게 강요하지 않도록 성평등과 가족다양성 교육을 준의무화하는 교육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청년기가 결혼, 출산, 임신 등 재생산 관련 생애사건이 집약적으로 이루어지고, 특히 재생산 행위가 여성의 몸에서 이루어지므로, 여성이 성과 재생산 실천을 자율적으로 선택, 결정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나 관련 실태 파악이 전무하고 청년 의제에서 주변화되어 있다.

주택 탐색과 마련에서 여성들은 특히 건축물의 낙후성, 신뢰할 만한 중개업소 찾기, 치안 및 주변 환경 문제를 어려워했고, 특히 먼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남녀 모두 주택 방법 상태, 거주환경에 대한 불만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성범죄 등 사회적 위협으로부터의 안전 이슈는 청년여성의 지역 정주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나 역시 의제 영역에서 주변화되어 있다.

농촌 청년여성의 스트레스 인지, 우울증, 우울 증상 유병률, 자살 충동은 농촌 남성의 2배 이상 높아 여성의 정신건강 취약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정신건강 취약성은 농촌 특수한 이슈는 아니지만 상담, 치료 서비스 인프라 부족 때문에 취약한 상태가 방치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농촌 청년들은 남녀 모두 도시 청년보다 사회에 대한 일반신뢰, 공정성 인식이 높은 편이긴 하나, 정치 효능감과 사회참여는 낮다. 특히 농촌 청년여성의 정치 효능감과 단체 참여율이 가장 저조하다. 농촌 청년여성들의 지역사회 관계와 교류 역시 남성에 비해 제한적이고 약하다. 가족, 지인 등 가까운 사적 관계, 정서적 지원을 중심으로 관계성이 형성되고 지역 내 교류, 지역에 대한 기대나 관심이 약하기 때문에 청년 커뮤니티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특히 농촌 여성에게 더 크다.

농촌 청년의 2/3 이상이 농촌을 떠날 의향을 가지고 있고, 특히 여성의 경우 교통, 문화, 교육 등 생활 인프라 부족이 농촌 이탈의 주된 이유로 나타나 청년들의 농촌 정주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성인지적 농촌 청년정책의 방향

농촌 청년 생애과정의 성별 차이 고려는 여성 인권의 핵심 구성 요소인 성과 재 생산 건강권,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 남녀 모두의 고용안정과 일·삶 균형 보장, 경제적 부양과 돌봄 책임의 사회화 및 남녀 균등 분담, 각종 의사결정 과정의 대등한 참여를 주로 포함해야 한다. 구체적 전략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 청년여성의 경제활동과 소득 안정을 지원한다. 고용 지원 및 고용 앞선 중심의 정책에서 고용의 질 제고 및 다양한 일거리 확대로 전략의 초점을 옮길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비시장적 일거리를 적정 수준의 유급 일거리로 만드는 것, 수평적이고 성평등한 일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둘째, 결혼 및 양육기 청년이 불이익을 겪지 않으며 여성과 남성이 부모로서 돌봄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남성과 여성 간의 균등한 돌봄 분담을 촉진한다. 보육시설 설치·운영, 공동육아 지원 등의 제도와 예산 운영 지침 등에 대한 농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돌봄 인프라 확충을 위한 농촌 특례 지침을 만드는 것, 농어촌 소규모 사업체의 일·생활 균형 제도 활용 인센티브를 더 확대하는 것,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농업인의 출산 급여 지급 범위를 농업경영주에서 전체 여성농업인으로 확대하는 것 등의 구체적 시책 개선을 과제로 추진해 볼 수 있다.

셋째, 안전을 별도의 정책 영역으로 설정하여 재해·사고 위험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험, 특히 성범죄로부터의 안전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범죄 피해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불안·두려움 등의 심리·정서적 위험 대응도 포함된다. 또한 농촌의 성차별적 관행과 문화로 인한 청년여성의 취약한 정신건강과 낮은 자존감 회복을 지원하고 농촌 사회의 성평등 의식·문화를 확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여성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된다.

넷째, 연애, 결혼에 대한 새로운 행동양식과 의식 변화를 고려하여 가족 다양성을 인정하는 정책 체계를 확립한다. 여기에는 비혼, 동거, 무자녀, 비혈연 공동체

등 가족 다양성에 대한 정보·교육 제공과 가구 단위 정책을 개인 단위 정책으로 전환해 가는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농업인수당, 공익직불제 등 농업정책과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이 부부 이상 가구를 정책 단위로 하여 농촌 청년의 정책 배제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가구 단위 정책을 개인 대상 정책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성과 재생산 자기결정권 실현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 제공 등에 노력을 기울인다. 농촌 청년의 성과 재생산 건강권과 관련해서는 두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하나는 피임 등 성 지식과 파트너 관계에서의 성적 대등성 등을 포함한 성인 대상의 포괄적 성교육의 실시 및 농촌 청년여성들이 겪는 여성의학과 관련 질환 문제를 농촌 보건·의료 영역의 중요 이슈로 다루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읍면 단위 찾아가는 성인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성문화센터 내 성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 소비·유통 인프라 부족을 고려하여 재생산 건강 관련 물품 구입 시 배송비 지원 등의 바우처 사업 시행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김계하, 조은아. (2019). “30대와 40대 미혼여성의 피임지식, 성 이충기준과 피임 자기효능감 간의 관련성.”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제25권 제2호. pp.169-181.
- 김순남. (2016). “이성에 비혼여성으로 살아가기: 지속가능한 비혼, 젠더, 친밀성.” *한국여성학*. 제32권 제1호. pp.181-217.
- 김순남. (2021). “‘남자로서의 당연한 삶은 없다’: 20-30대 남성들의 ‘성찰적 개인화’와 새로운 관계적 삶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37권 제1호. pp.155-189.
- 김은설, 김지현, 이재희, 김혜전, 안석. (2018). “도농복합지역 육아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30-0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혜경. (2017). “‘가족 이후’의 대안적 친밀성.” *한국사회학*. 제51권 제1호. pp.155-198.
- 남춘호, 남궁명희. (2012). “생애과정의 탈표준화 경향에 대한 경험적 연구: 성인기이행의 구조변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제20권 제2호. pp.91-128.
- 마상진, 이순미, 박영구, 최익창, 최재현, 김태완, 김문길, 류진아, 이주미, 김남훈, 이보경, 박주영, 김강호. (2022). *농촌과 청년: 청년세대를 통한 농촌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마상진, 이순미, 박영구, 최재현. (2022). *농촌청년 연구자문단 간담회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신경아, 김영미, 류정아, 박미선, 박정미, 안윤정, 이은아, 최윤선, 최지은, 라시내, 이소창. (2021). *청년정책 기본계획 특정성별영향평가*. 여성가족부.
- 이순미. (2017). “노동경력과 가족경로 분석을 통해 본 청년기 연장(long youth)의 젠더 차이.” *한국여성학*. 제33권 제2호. pp.181-244.
- 이순미, 위라겸, 정인경. (2020). *농어촌의 미래 여성농어업인 인력육성 방안*.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임복희, 박지경. (2018). “대학생의 피임지식, 태도 및 위험지각이 피임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제9권 제4호. pp.1621-1636.
- 태희원. (2018). *충남 농촌 청년여성의 생활실태와 정책지원 방안*.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태희원, 송미영, 신유리. (2021). *청년여성농업인 육성 및 정착 활성화 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한가람. (2013). “다양한 가족 다양한 생애: 가족구성권 연구모임이 걸어온 길.” 여/성이론. 제29호. pp.263-273.

Krüger, H. (2003). The Life-Course Regime: Ambiguities between Inter-relatedness and Individualization. pp.33-56. Heinz, W.R. & Marshall, V.W. (eds.) Social Dynamics of the Life Course: Transitions, Institutions, and Interrelations. Aldine de Gruyter.

〈통계자료〉

고용노동부(<https://kosis.kr>). 2020년 일가정양립실태조사. 검색일: 2022. 5. 22.

질병관리청(<https://mdis.kostat.go.kr>). 2020 지역사회건강조사. 검색일: 2022. 5. 20.

통계청(<https://kosis.kr>). 2021 가계동향조사. 검색일: 2022. 5. 22.

통계청(<https://mdis.kostat.go.kr>). 2021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검색일: 2022. 5. 20.

통계청(<https://mdis.kostat.go.kr>). 2021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 부가조사(8월). 검색일: 2022. 5. 20.

통계청(<https://mdis.kostat.go.kr>). 2020 사회조사(보건, 교육, 안전, 가족). 검색일: 2022. 5. 20.

통계청(<https://mdis.kostat.go.kr>). 2021 사회조사(복지, 사회참여,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검색일: 2022. 5. 20.

통계청(<https://kosis.kr>). 인구총조사(2000~2020년). 검색일: 2022. 4. 13.

통계청(<https://mdis.kostat.go.kr>). 2020 인구주택총조사(2%_인구사항). 검색일: 2022. 4. 12.

통계청(<https://mdis.kostat.go.kr>). 인구이동통계(2010~2020년). 검색일: 2022. 3. 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https://data.kihasa.re.kr/kihasa/kor/databank>). 2018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검색일: 2022. 5. 2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https://www.nypi.re.kr/archive/mps>). 2020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 검색일: 2022. 3. 22.

한국행정연구원(<https://mdis.kostat.go.kr>). 2020 사회통합실태조사. 검색일: 2022. 5. 27.

<법률>

근로기준법(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18조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검색일: 2022. 5. 2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 2022.7.12. 법률 제18752호, 2022.1.11., 일부개정). 제4
조(<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검색일: 2022. 5. 24.

<홈페이지>

가족구성권연구소(<http://familyequalityrights.org>). 검색일: 2022. 4. 13.

KREI

www.krei.re.kr

농촌 청년여성 생활실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T. 1833-5500 F. 061) 820-2211

